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2

박영민 외

1 나의 즐거운 국어생활

01 똑똑하게 글 읽기

제재

본책 10~15쪽

1 ② 2 ⑤ 3 ③ 4 ① 5 ② 6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 7 ⑤ 8 ① 9 ⑤ 10 ② 11 ⑤

1 이 글은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고, 진정한 월드컵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는 글이다. 그러나 월드컵의 역대 우승국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④ (라)를 통해 질 리메가 월드컵을 기획하고 이를 창설하기까지의 과정과 월드컵의 유래를 알 수 있다.

③ (라)를 통해 월드컵을 만들게 된 목적이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통해 월드컵을 처음 만든 질 리메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다.

2 질 리메는 올림픽 축구 대회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프로 선수의 참가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모두의 화합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에 전 세계가 참여하고 프로 선수까지 출전할 수 있는 월드컵을 창설하기로 결심했다.

3 <보기>는 당시 축구가 프랑스 상류 사회와 중산층에서 환영받는 스포츠가 아니었던 이유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글에서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독자는 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4 축구 전쟁으로 유명한 국가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월드컵에 출전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축구 전쟁이 어떤 이유로 일어난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② (마)에 벨기에,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프랑스 4개의 유럽 국가가 참가했음이 제시되어 있다.

③ (마)에서 우루과이가 1924년, 1928년 올림픽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1930년에는 세계 박람회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월드컵 개최지로 적절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마)에서 첫 번째 월드컵은 많은 국가들이 참가에 소극적이었고, 13개국만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사)에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을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5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이 개최된 당시엔 원정 경기를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월드컵 참가에 소극적이었다. 질 리메의 고국인 프랑스에서도 불참 여론이 있었지만,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참가하게 되었다.

6 월드컵의 '월드'의 이중적인 의미 중 이상적인 의미는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로, 세계 모든 대륙의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닌다.

7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진정한 월드컵으로 평가하는 1982년 월드컵 이전에는 유럽과 남미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의 국가들이 결다리에 불과했다고 하였다.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에 할당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의 숫자가 매우 적어 본선 진출도 힘들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8 축구 전문가들은 본선 진출국이 늘어났다는 점, 처음 출전한 국가들이 늘어났다는 점, 월드컵 사상 최초로 100억 명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자 수를 기록하여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1982년 월드컵을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ㄷ. 해외 위성 중계는 1966년 월드컵부터 시작되었으며, 1982년에 이르러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ㄹ.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에 1장씩만 배정되던 본선 진출권이 1982년 월드컵에서 2장으로 늘어난 것이다.

9 글쓴이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진정한 월드컵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개최지나 특정 국가의 성과 때문이 아니라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줄어들어 8강 진출국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0 글쓴이는 월드컵의 유래와 진정한 월드컵에 대해 설명한 뒤, 마지막 문단에서 월드컵의 창설자인 질 리메를 떠올리며 월드컵을 즐기기를 제안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월드컵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예방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월드컵의 인기 유지를 위한 스포츠 행사의 기획은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니다.

④ 월드컵의 출전 국가가 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월드컵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일 뿐, 글쓴이가 독자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아니다.

⑤ 글쓴이가 질 리메의 업적을 기억하며 월드컵을 즐기기를 당부한 것은 맞지만 그의 이름을 따서 축구 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11 독자는 글을 읽은 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보기>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신문 기사를 찾아본 것은 읽은 후 단계의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를 실천한 것이다.

-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당시에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대부분 귀족이거나 상류층 출신이었던 것에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06 ⑤ 07 ③ 08 ⑤ 09 ⑤ 10 ⑤ 11 ④ 12 ④ 13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 비교하기 14 ③ 15 ⑤

01 준서네 모듬은 축구에는 관심이 많지만 월드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했다. 전문가 수준의 깊이 있는 정보를 다룬 책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준서네 모듬은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다룬 책을 선정했다.

② 다음 주에 있을 발표 이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임을 고려하였다.

④ 모듬 구성원 모두 축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월드컵에 관한 책을 선정했다.

⑤ 월드컵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했다.

02 [C]에서 준서는 책의 제목, 소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독서 상황은 독서 목적, 독서 시간, 독서 방식 등을 의미하므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독서 상황에 맞는 글인지 점검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03 (나)에서 준서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거나, 차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는 등 글을 읽기 전에 점검·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게 되어 읽기 그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04 이 글은 올림픽 축구 대회가 아마추어리즘 원칙에 따라 프로 선수의 참가는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화합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월드컵을 만든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올림픽 대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쥘 리메가 성장하여 축구 단체를 조직하고 월드컵을 창설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② 월드컵을 창설한 쥘 리메의 생애를 중심으로 월드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을 전달하고 있다.

③ 쥘 리메가 1897년 파리에서 레드 스타를 조직했다는 점, 1919년 프랑스 축구 연맹을 창설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연도와 단체명을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올림픽 축구 대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프로 선수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르게 월드컵은 프로 선수

의 참가도 허용되는, 전 세계적인 대회를 지향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05 (가)에 의하면 쥘 리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약한 인물들 대부분이 귀족이거나 상류층 출신이었던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쥘 리메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단체를 조직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쥘 리메가 스포츠 단체를 조직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가)에서 찾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6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은 개최국 우루과이가 참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 참가가 어려웠던 상황 때문에 유럽 4개국을 포함한 13개국만이 참가하였다. 이는 월드컵의 개최 목적인 전 세계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에는 대회 규모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개최국 우루과이가 다른 나라의 참가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하였으나, 각 나라에서 참가 비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④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프로 선수는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 축구 대회이다.

③ 올림픽 축구 대회에 비해 운영 방식이 미흡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07 쥘 리메는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을 위해 월드컵을 기획하였으며, 이는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쥘 리메가 월드컵을 기획한 이유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쥘 리메가 스포츠 단체를 조직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으로, 이후에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임을 예측한 것은 적절하다.

②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겠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④ 아마추어리즘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⑤ 글을 읽으며 다음에 제시될 내용이 무엇일지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다.

08 이 글은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 및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에 대해 다룬 중수필이다. 글쓴이의 생활 속 경험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경수필과 달리 중수필은 주로 사회적, 철학적,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며 깊이 있는 사색이나 논쟁적인 내용을 담아 깊이 있게 쓰는 글이다.

|오답 풀이| ①, ④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 쓴

이야기이다. 글에 등장하는 ‘나’는 작품 속 인물이고 글쓰이는 작가이므로 ‘나’와 글쓰이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 갈등의 진행 과정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② 시에는 비유,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함축적이고 인상적인 언어가 주로 사용된다.

③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해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정형시 갈래로, 3장 6구의 구조를 가지며 45자 내외로 구성된다.

09 (나)에서 1970년대까진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에 배정된 본선 진출권이 1장에 불과했기에 한국의 본선 진출이 꿈 같은 일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마)를 통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유럽과 남미의 몇몇 축구 강국은 조별 예선에서 일찌감치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리)를 통해 중앙 아벨란제가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출전권을 늘렸으며, 그로 인한 경기력 저하로 비판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를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1장씩만 배정되던 본선 진출권이 1982년부터 2장씩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를 통해 축구 전쟁으로 유명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1982년 월드컵에 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이 대회 이후에 축구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다.

10 글을 읽는 중에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면 능동적인 독자로서 글을 읽을 수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대륙에서 최초로 8강에 오른 국가들이 있으며,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 세네갈, 미국이라는 점은 (마)에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④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므로,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답을 찾아서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1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독자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에 해당한다. 이를 글의 내용과 연결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는 점검·조정 방법이다.

12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이 24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ㄱ), 6개의 새로운 국가가 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ㄴ). 또한 100억 명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해외 중계가 처음으로 자리 잡은 대회(ㄷ)라는 점에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에게 진정한 월드컵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답 풀이| ㄷ. 월드컵은 1930년에 처음으로 개최될 때부터 프로 선수의 참가가 허용되었다.

ㄴ.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 아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8강에 진출하였다.

13 〈보기〉는 글을 읽는 중에 점검하고 조정한 내용이다. 축구 전문가들은 1982년 월드컵을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글쓰이는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해 1982년 월드컵 역시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준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다.

14 독자는 글을 읽은 후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탕으로 글의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글의 제목과 소제목을 보며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예측해 보는 것은 글을 읽기 전에 점검·조정할 내용에 해당한다.

15 글을 읽는 중에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는 읽기 속도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무시하고 계획한 시간 내에 읽기 위해 끝까지 읽은 것은 효과적인 독서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발전 학습

본책 20~23쪽

1 ⑤ 2 ⑤ 3 ③ 4 ③ 5 자기 몸을 갈고 다듬는 데 필요한 책,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책
6 ③ 7 ① 8 ② 9 책을 읽을 때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두는 것

1 이 글은 정약용의 독서 목적과 구체적인 독서 방법을 설명하는 중수필이다. 정약용의 편지를 활용하여 실감 나고 설득력 있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편지를 읽고 난 개인적인 소감이나 깨달음을 풀어 낸 글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④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활용하여 독서 태도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② 정약용이 권한 책의 종류로 자기 몸을 갈고 다듬는 데 필요한 책과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책을 제시하고 있다.

③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 해결이라는 정약용의 독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2 정약용은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읽을 것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민족이 닫고 서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책을 읽어야 한다고 권하였다. 따라서 현실의 실질적인 쓸모를 강조하여 옛날의 역사책을 멀리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3 정약용은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여 밀바탕을 갖춘 이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역사책을 읽어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다양한 글을 읽어 문장과 표현을 다듬는 데 집중하는 것은 정약용이 제시한 학문 수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정약용은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입신출세하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정약용은 자기 삶의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독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갈고 다듬는 데 필요한 책과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책을 추천하고 있다.
- 6 정약용이 제시한 초서법은 자기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뚜렷하게 한 이후,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만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책에 적힌 내용을 빠짐없이 옮겨 적는 성실함과 우직함을 본받고 싶다는 것은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 7 정약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독서 방법(㉓)은 '남독'이다. 남독은 책을 닦치는 대로 많이 읽는 방법으로, 책을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가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약용이 적절하다고 본 독서 방법(㉔)은 '정독'이다. 정독은 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읽는 방법으로, 책을 읽는 도중에 그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을 파헤치는 것을 말한다.
- 8 초서법은 정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독자가 세운 판단 기준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해야 할 기본 작업에 해당하며, 발췌의 과정 또한 독자 스스로 세운 주제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직접 판단 기준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이나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수용하는 것은 정약용이 말한 초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정약용은 정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서법을 설명하며 책을 읽을 때 그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두는 것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하였다.

고난도 입심화 문제

본책 24~27쪽

- 01 ② 02 ① 03 ⑤ 04 ② 05 배경지식 06 ③
07 ④ 08 철 리메는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을 목적으로 월드컵을 창설하였다. 09 ⑤ 10 ① 11 ③
12 정약용은 책을 닦치는 대로 많이 읽는 '남독'을 적절하지 않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13 ⑤ 14 ⑤

- 01 입을 글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독서 상황에는 독서의 목적, 독서의 시기나 시간, 독서의 방식이나 방법 등이 있다. 글 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배경지식, 글 내용의 범위와 깊이, 글에 쓰인 단어나 문장의 수준 등은 독서 수준에 해당한다.
- 02 글의 주제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글을 읽기 전이 아니라 글을 읽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② 글을 읽기 전에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거나 차례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글 내용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떠올리거나 제목이나 소재목 등을 보며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④ 글을 읽는 중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거나,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03 윤서는 모듬 구성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책을 고르자는 민재의 말에 자신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분야를 다루고 있거나,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을 고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생소한 분야를 발표 주제에서 제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 04 (나)에서 준서네 모듬 구성원은 모두 축구에는 관심이 많지만 월드컵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축구에 대해 너무 깊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사용된 책은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5 <보기>에서 준서가 월드컵과 관련하여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부모님께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떠올리는 것은, 글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활동에 해당한다. 글을 읽기 전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인 배경지식을 떠올리면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06 <보기>에 따르면 중수필은 개인의 경험보다는 사회적·철학적 소재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쓰인 글이다. 글쓴이는 (바)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8강에 진출한 국가의 대륙별 분포'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07 이 글은 질 리메가 월드컵을 창설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질 리메는 1897년에 스포츠 클럽인 레드 스타를 조직하며 활동을 시작했고(ㄷ), 1904년 파리에서 국제 축구 연맹[FIFA]이 창설되는 것을 보며 스포츠 조직가로서의 의욕을 다졌다(ㄴ). 이후 1910년에 프랑스 최초의 축구 국가 리그를 창설하고 회장이 되었으며(ㄱ), 이 성과는 1919년 프랑스 축구 연맹[FFF]의 창설과 질 리메의 초대 회장 취임으로 이어졌다(ㄹ). 마지막으로 1921년 국제 축구 연맹의 제3대 회장이 된 질 리메는 비로소 전 세계가 참여하는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기 시작하였다(ㄷ). 따라서 질 리메의 월드컵 창설 과정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ㄷ-ㄹ-ㄱ-ㄴ-ㄷ'이다.

08 (나)를 통해 질 리메가 생각한 월드컵의 목적이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질 리메는 프로 선수까지 출전할 수 있는, 유럽만이 아닌 정말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고자 했다.

평가 기준	확인
질 리메가 생각한 월드컵의 목적이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9 <보기>는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해 1982년 월드컵 역시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1982년 월드컵의 한계가 나타나 있다. (바)의 첫 문장이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진짜 월드컵의 시작은 어쩌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일지도 모른다.'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내용은 (마)와 (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0 (가)에 따르면 질 리메는 스스로 스포츠 종목에서 활약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단체를 조직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따라서 질 리메가 자신의 축구 기량을 과시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고 이해한 것은 글에 제시된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므로 점검·조정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글을 읽기 전 차례를 보며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④ 글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해결하거나, 글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직접 찾아보며 능동적인 자세로 글을 읽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글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보기 1>을 통해 준서가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글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제리가 강팀인 서독을 이겼다는 내용의 ㉠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경기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는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준서에게 필요한 내용과 거리가 멀다.

12 정약용은 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읽는 '정독'을 적절한 독서 방법으로 보았다.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 '남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평가 기준	확인
정약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독서 방법인 '남독'에 대해서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13 (마)에서 말한 기본적인 작업은 책을 읽을 때 그 요점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약용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해 둔다면,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정약용은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 '남독'을 적절하지 않은 독서 방법이라고 했다.

② 정약용은 참고할 책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른 책을 참고해 연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 정약용은 주체적인 입장에서 책에서 필요한 곳을 발췌하고 그것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④ 학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정해 두는 것은 초서법을 위한 밑바탕에 해당한다.

14 책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하고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과정이므로 2단계인 해독에 해당한다. 반면 5단계인 의식은 초서를 통해 기록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스스로 성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와 철학을 넓히는 단계를 의미한다.

02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활동 학습

본책 30~35쪽

1 ③ 2 ⑤ 3 ⑤ 4 ⑤ 5 ④ 6 ⑤ 7 ④

- 1 자유의 쓰기 계획에서 채식 식단의 장점을 언급하기 위해 자신의 체험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자유는 채식 식단의 기대 효과와 영양 선생님의 우려를 고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2 (다)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탄소가 식물, 토양, 하천, 해양 등을 거쳐 흡수 및 저장되는 순환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3 자유는 육식 위주 식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영양 선생님께 건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다)는 온실가스의 종류 중 하나인 탄소가 배출된 뒤 순환되는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유가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글에 활용하기 어렵다.
- 4 (바)는 다양한 채식 식단을 보여 주는 웹진 자료이다. 이는 채식 식단이 맛이 없어 잔반이 많이 남을 것이라는 영양 선생님의 우려를 해소하고, 채식 식단도 충분히 맛있게 구성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의 자료를 잔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라)를 활용하면 육류 위주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여 채식 급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③ 채식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의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채식 급식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 5 '가운데' 부분의 ㉠에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가 제안하는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자유는 육류 위주 식단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정기적인 채식 식단 제공'이 적절하다.
- 6 자유가 쓴 글에서는 채식 식단의 긍정적인 점을 알려 준다면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내용이 있을 뿐, 실제로 자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대다수의 찬성 의견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 7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여 단일양식 자료에 비해 글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독자가 글의 내용을 비판 없이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집계 ④ 예상문제

본책 36~39쪽

-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① 06 글의 주제, 목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07 ④ 08 ③ 09 ③
10 육류 위주 식단, 한 달에 한 번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제공
11 ② 12 ③ 13 ③ 14 ㉠: 음식의 맛과 다양성을 높인다. ㉡: 페스코 채식 식단을 시행한다. 15 ② 16 ③

- 01 (가)에서 자유는 육류 섭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 달에 한 번 급식을 채식 식단으로 제공해 달라고 영양 선생님을 설득하는 것을 글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오답 풀이| ① 온실가스에 관한 방송을 본 것은 글을 쓰게 된 계기일 뿐, 이에 대한 감상을 쓰고자 계획한 것은 아니다.
②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나, 이는 설득을 위한 수단일 뿐 이에 대해 보고하고자 계획한 것은 아니다.
④ 육류 섭취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글을 쓰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⑤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채식 식단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건의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 02 (가)에서 자유는 영양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 글을 쓰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우리 학교 친구들의 반응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인근 지역 학교 학생들까지 독자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 03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쓰기 계획 세우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글 쓰고 고쳐 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나)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이 쓰려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지 등을 기준으로 글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한다.
- 04 [C]의 인터넷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동물 단백질 섭취량은 2010년 7.3퍼센트에서 2019년 8.9퍼센트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식물 단백질 섭취량은 6.7퍼센트에서 6.1퍼센트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동물 단백질 섭취량과 식물 단백질 섭취량이 모두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는 설명은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05 글을 쓸 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선별할 때는 자료의 내용이 자신이 쓰려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자료인지, 자료의 제작자가 전문성이 있는지, 출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점검해야 한다. 자료의 조회 수나 추천 수가 높다고 해서 그 자료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지유는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는 글을 쓰고자 계획하고 있다. 채식 식단의 제공이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은 맞으나, 탄소의 순환 과정 자체는 이 글의 주제와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지유가 글을 쓸 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글의 주제,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7 ㉔에서 지유는 채식 식단의 도입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채식 식단의 도입이 기존 식단에 비해 잔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은 (나)에 나타나지 않는다.

08 이 글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하는 건의문이다. 건의문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건의문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건의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로 삼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글에서도 독자를 영양 선생님과 설정하고, 존댓말과 감사 인사 등을 통해 예의를 갖추어 쓰고 있다.

② 근거를 제시하면 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육류 위주 식단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식품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청소년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건의문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이 글에서도 학교 급식이라는 일상에서 '한 달에 한 번 채식 급식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⑤ 예상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잔반 문제나 영양 불균형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9 (나)에서 육식 식단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여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③이 적절하지 않은 반응에 해당한다.

10 이 글은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청소년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11 이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건의문으로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 이 글을 '처음-가운데-끝'으로 나누면, 영양 선생님에 대한 인사와 자기소개,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를 다룬 (가),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다룬 (나)~(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 (사)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12 (라)에서는 채식 식단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채식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는 채식 식단을 도입한 학교 학생의 인터뷰 영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자료는 (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므로 (라)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A]는 식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로, 다른 식품보다 육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복합양식 자료인 그래프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육식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육식의 이점이 아닌 문제점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② 식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 식품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자료는 아니다.

④ 채식 식단의 제공을 건의하기 위해 육식 위주 식단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 건의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다.

⑤ 식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표현한 자료는 아니다.

14 글쓴이는 건의 사항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㉔에 나타난 잔반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의 맛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 다양한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㉔에 나타난 영양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가벼운 채식 단계인 페스코 채식 식단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평가 기준	확인
㉔과 ㉔의 해결 방안을 각각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15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고 점검할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게 썼는지(ㄱ), 자료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ㄴ) 검토해야 한다. 또한 독자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인지,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 ㄴ. 복합양식 자료는 글의 맥락상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모든 문단에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글의 유형에 따라 '처음-가운데-끝', '서론-본론-결론' 등 다양한 구조로 조직할 수 있다.

- 16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필요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시각적, 청각적 자료 등을 통해 전달하므로 글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발전 학습

본책 40쪽

1 ② 2 ⑤

- 1 카드 뉴스는 이미지와 간략한 글을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제목은 독자가 카드 뉴스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인터넷 기사 등 타인의 자료를 재구성할 때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출처를 표기하는 등 쓰기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③ 카드 뉴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접근하는 매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해야 전달력이 높아진다.

④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유익함과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카드 뉴스로 보기 어렵다.

⑤ 화려한 색상과 큰 자막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내용에 맞도록 구성하여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 2 <보기>의 카드 뉴스는 책 읽기에 관심이 있으나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서점 등과 같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독서의 효과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은 <보기>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카드 뉴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입심화 문제

본책 41~43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④ 06 ⑤

07 글을 쓸 때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08 ④ 09 ⑤ 10 ④ 11 ①

- 01 복합양식 자료가 단일양식 자료보다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정보의 신뢰성은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제작자가 제작하였는지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 02 지유는 영양 선생님께 채식 식단 제공을 건의하는 글을 쓰고자 계획하고 있다. 건의문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글이다.

| 오답 풀이 | ① 체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수필의 특징이다.

③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감정을 나누는 편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정보를 전달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의 목적에 해당한다.

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에 활용하는 설명 방식 중 하나이다.

- 03 지유가 쓰려는 글은 영양 선생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건의문이다. 건의문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글이므로, 격식을 갖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글을 실을 매체가 학교 누리집 게시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한 말투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지유는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 제공을 건의하는 글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때 육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다는 것(ㄴ)과 육식 위주 식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ㄷ)을 보여 줌으로써 채식 식단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육식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ㄱ)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05 체험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며, 그 과정에서 느낀 글쓴이의 정서나 깨달음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순서는 주로 설명하는 글에서 활용하는 조직 방법에 해당한다.

- 06 (마)에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채식 식단의 기대 효과로 제

시하고 있다. 또 (가)에서는 채식 식단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채식 급식의 제 공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07 ㉠은 잔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채식 식단을 보여 주 기 위해 활용된 자료이다. 이와 같이 복합양식 자료를 글에 활 용하면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독자의 관심과 흥 미에 맞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8 (나)에서 육류 위주의 식단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 였다. 이에 대해 동물 단백질의 과다한 섭취가 과체중 및 비만 의 위험성을 높이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의 위 험을 높인다는 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정중한 말투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 다.

② (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잔반 문제, 영양소 섭취 문제 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를 제시하고 (나)에서 건강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다)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구체적인 시행 빈도를 제안 함으로써 건의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09 글에 활용하는 복합양식 자료는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다. 단순히 독자의 흥미 를 끌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매체 자료를 활용 할 경우, 오히려 글의 흐름을 해쳐서 주제 전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형식의 다양성보다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 려하여 글에 활용된 자료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 10 카드 뉴스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짧은 문구와 이미지로 구성하므로, 글의 내용을 최소화하여 전달 력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산문의 형식으로 대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카드 뉴스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 11 제시된 카드 뉴스의 글과 이미지를 살펴보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예상 독자는 독서에 관심이 있거나 독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카드 뉴스의 제작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독자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44~47쪽

- 01 ① 02 ② 03 ③ 04 글쓴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진정한 월드컵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8강에 오른 나라들의 대륙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05 ㉠: (가), (나) ㉡: (다), (라), (마), (바) 06 ② 07 ② 08 ③ 09 ③ 10 ④ 11 육류 위주의 식단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도입해야 한다. 12 ⑤ 13 환경 보호, 건강한 식사 14 ③ 15 ④

- 01 이 글은 월드컵 리메의 월드컵 창설 과정에서 시작하여 역대 주요 대회를 바탕으로 월드컵의 유래와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을 설 명하고 있다. 즉 참가국 수나 대륙별 경기력 등의 다양한 기준 을 통해 월드컵이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으로 나아간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특정 국가의 성과를 부각하여 의미를 드 러낸 것은 아니다.

- 02 (가)를 통해 월드컵이 국제 스포츠계의 인물 대부분이 귀족이 나 상류층 출신이었던 점에 아쉬움을 느꼈으며, 축구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대회를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03 (라)에 따르면 월드컵의 해외 위성 중계가 시작된 것은 1966 년 월드컵이며, 월드컵의 해외 중계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 은 것은 1982년이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해외 위성 중계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1930년 월드컵 당시, 원정 참가가 어려워 많은 국가들이 월드컵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13개국만이 1930년 월드컵에 참여했다. 반면 1982년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 이 확대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24개 국가가 본선에 진출한 대회 였다.

② 1930년 월드컵은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으 며 세계 박람회도 열릴 예정이었던 우루과이에서, 1982년 월 드컵은 스페인에서 개최되었다.

④ 1930년 월드컵은 첫 번째 월드컵이므로 세계인의 축제로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82년 월드컵은 축구 전문가들에 게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으로 평가받는다.

⑤ 1930년 월드컵 당시 많은 국가들이 원정 참가에 소극적이었 고, 국제 친선과 화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적은 수인 13개 국만이 참가했다. 1982년 월드컵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 아니아, 북중미의 6개국이 조별 예선에서 단 2승만을 기록하는 등 대륙별 경기력의 편차가 심했다.

- 04 (마)에서 글쓴이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 본선 진출국을 확 대했음에도,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해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바)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국가들이 고르게 8강에 진출하며 기존의 실력 편차를 극복했음을 강조하며 진짜 월드컵의 시작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글쓴이가 2002년 월드컵을 진정한 월드컵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썼다.	
대륙별 경기력의 편차를 극복했다는 이유를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5 ㉠에는 쥘 리메가 월드컵을 창설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가), 첫 번째 월드컵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에 대해 설명한 (나)가 해당한다. 그리고 ㉡에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의 의의와 한계,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과를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과 관련하여 설명한 (다)~(바)가 포함된다.

- 06 <보기>는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고 있다. 이와 같이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독자로서 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07 글을 읽은 뒤에는 자신이 글을 읽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글의 주제나 주요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글을 읽으며 더 알고 싶었던 내용을 추가로 찾아보거나 자신의 읽기 활동을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때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모든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8 복합양식 자료는 여러 가지 기호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표현한 자료이다. 따라서 복합양식 자료와 단일양식 자료를 구분할 때는 해당 자료를 구성하는 기호의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의 시사 문제를 알리는 라디오 뉴스의 경우,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의 매체 특성상 하나의 기호로 이루어진 자료이므로 복합양식 자료가 아닌 단일양식 자료에 해당한다.

- 09 이 글은 영양 선생님에게 채식 식단의 도입을 건의하는 글이다.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 체험보다는, 육류 위주 식단이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 같은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10 '가운데'에서는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식 급식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채식 급식의 기대 효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여와 건강 증진을 언급하고 있다. 채식 급식 도입에 대한 영양 선생님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만, 채식 급식의 도입을 반대

하는 의견을 덧붙인 것은 아니다.

- 11 (나)에서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하고 있으며, (다)에서 육류 위주 식단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을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에서 한 달에 한 번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육류 위주 식단의 두 가지 문제점을 알맞게 썼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기적인 채식 식단 도입에 대한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12 (마)에서 채식 식단 도입에 대해 학생들이 채식을 선호하지 않아 잔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ㄷ)과, 성장기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ㄹ)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맛과 다양성을 높인 채식 식단과 펠스코 채식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건의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채식 식단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시간 소모에 대한 내용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13 (바)에서 채식 식단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채식 식단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에 해당한다.

- 14 <보기>의 자료는 동물 단백질 섭취량과 과체중 및 비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객관적 통계 자료이다. 이는 육식 위주 식단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며, 채식 급식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인용한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② 수치화된 그래프를 통해 육식 위주 식단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④ 시각화된 그래프 자료를 통해 동물 단백질 섭취와 과체중 및 비만의 상관관계를 보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주장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15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활용한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자료를 제작한 제작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서로를 잇는 이해와 소통

01 세상을 담은 문학

제재

본책 52~69쪽

1 ④	2 ②	3 ②	4 ②	5 ⑤	6 외나무다리
7 ⑤	8 ⑤	9 ③	10 ④	11 이끼 낀 나무토막	
12 ③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②
18 ①	19 ③	20 ④	21 ④	22 ①	23 ③
24 주막집	25 ⑤	26 ②, ⑤	27 ②	28 고등어	
29 ⑤	30 ⑤	31 ④	32 ③		

- 1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를 통해 전쟁으로 죽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 2 만도는 아들인 진수를 만날 생각에 어쨌바람이 나고, 용머리 재도 단숨에 올라선다. 이를 통해 만도가 기쁨과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도가 전쟁에서 고생했을 진수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만도는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생각할수록 어쨌바람이 날 일'이라고 하였다.
③ 만도는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에 어디를 다친 것인지 생각하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④ 아들이 오는 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만도는 '공연히 마음이 바뻐다.'고 하였다.
⑤ 만도는 '설마 나같이 이렇게사 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며 불길한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고 있다.
- 3 ㉠은 만도가 진수를 기다리며 하는 생각이다. 만도는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내심 불안해하며, 어디를 다쳤더라도 자신처럼 신체의 일부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만도의 생각은 진수가 겪은 비극적 사건, 즉 진수가 만도처럼 신체의 일부를 잃었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4 ㉡은 덜렁 처진 왼쪽 소매자락이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만도의 외양을 묘사한 것으로, 한쪽 팔이 없는 만도의 처지를 드러낸다.
- 5 만도는 읍에 나올 때마다 주막에 한 번씩 들른다. 하지만 진수를 만나러 가던 날에는 방문 앞에 신발이 많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지나쳐 버린다. 즉 만도가 언짢은 일 때문에 주막을 지나친 것은 아니다.
- 6 만도는 시냇물 위에 놓여 있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물에 굴러떨어진 일이 있다. 이는 한쪽 팔이 없어 생긴 일로, 만도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만도는 진수를 마중하기 위해 외나무다리를 지나며,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

- 7 물에 굴러떨어진 만도는 ㉠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이는 옷이 젖었기 때문도 아니고,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했기 때문도 아니다. 만도는 '팔뚝 하나가 뭉땅 잘려져 나간 신체'를 드러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창피함을 느낀 것이다.
- 8 정거장 대합실에 도착한 만도는 아들 진수와 의 만남을 기대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아들을 기다리던 만도가 정거장 대합실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섬뜩함을 느끼고 있으나, 그러한 일을 다시 겪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9 만도는 진수를 만나러 정거장으로 향하던 길에 장거리를 찾아가며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즉 만도는 고등어로 반찬을 준비해서 진수에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 주기 위해 장거리로 향한 것이다.
- 10 문학 작품에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건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방언을 사용하면 등장인물이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②, ⑤ 등장인물이 방언을 사용할 경우 등장인물이나 공간의 지역적인 특성을 드러내며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③ 격식을 갖춘 표준어에 비해 방언은 인물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여, 독자가 등장인물에게 정서적인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11 만도는 정거장 대합실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팔뚝을 '이끼 낀 나무토막'에 비유한다. 이는 신체에서 떨어져 나간 팔뚝이 생명력을 잃어 시퍼렇게 굳어진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사건의 비극성을 부각한다.
- 12 만도는 징용을 가게 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무덤덤하게 행동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배웅하며 슬퍼하는 아내를 보자 마음 아파한다. 만도가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성격인 것은 맞으나, 만도가 탈진한 동료들의 일을 대신 해 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3 나.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은 물도 입에 맞지 않고 음식도 쉽게 상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다. 만도가 징용을 가면서 아내와 헤어진 것처럼, 당시에는 징용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르. 만도와 함께 징용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으며 북해도나 남양 군도, 만주 등의 목적지를 추측하고 있었다.

14 만도는 아내가 한눈도 안 팔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 마음이 텅 좋다고 하였다. 이에 만도는 슬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과 같이 돌아서 버린 것이다.

15 징용지에서 사람들은 섬에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마이트로 굴을 파는 일을 한다. 만도가 불을 땀기는 차례가 되었을 때, 만도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고 모기 물린 자리가 쑥쑥 쑤시기도 한다. 또한 성냥이 자꾸 꺼지는 등 불길한 느낌을 받는데, 이는 만도에게 팔을 잃는 사고와 같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가 굴 밖으로 나간 것은 굴속의 바위를 허물어 내는 일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불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16 만도가 다이어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이고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연합군의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며 공습을 해 온다. 공습에 놀란 만도는 굴 안으로 도로 달려 들어가는데, 이때 다이어마이트가 터지면서 한쪽 팔을 잃게 된다.

17 ㉠은 비행장을 다듬는 일이 끝나자,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을 파는 작업이 시작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는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산 넘어 산이다’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걱정도 팔자다’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거나 관계도 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다.

③ ‘두 손 두 발 다 들다’는 자기 능력에서 벗어나서 포기하는 경우를 이르는 속담이다.

④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법이 생긴다는 속담이다.

18 공습경보가 나면 노동자들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굴 바닥에 엎드려 기다려야 한다. 이로 인해 고된 노동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기에 노동자들은 공습이 있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19 만도는 정거장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중, 과거 징용을 떠나던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이때 갑자기 들려온 ‘기차 소리’는 만도가 생각을 끊고, 다시 아들을 기다리는 현재의 정거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징용의 고난은 만도의 회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기차 소리가 그 고난을 직접 보여 주거나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② 기차 소리는 기차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일 뿐, 만도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기차 소리는 진수가 탄 기차가 곧 도착할 것임을 의미한다.

⑤ 만도가 자신이 겪었던 사고를 떠올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은 맞으나, 기차 소리가 만도의 불안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20 만도는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서 진수를 찾으려 했으나 쉽사리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밀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이군인을 보게 되지만, 진수가 다리를 잃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21 다리를 잃은 진수를 본 만도는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 만도는 진수에게 “에라이, 이놈아!”라며 모질게 말하는데, 이는 진수의 부상을 보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팔을 잃은 것과 같은 불행이 진수에게도 닥쳤다는 분노가 거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다.

22 ㄱ. 만도는 주막에서 국수를 주문하며 곱빼기로, 참기름도 쳐서 달라고 말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진수에 대한 만도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ㄴ. 만도는 주막에서 급하게 술을 석 잔 마신 후, ‘술기가 열근하게 돌아, 이제 좀 속이 풀리는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으며, 진수를 챙기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술이 만도의 속상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ㄷ. 진수는 주막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방문턱에 걸터앉았다. 이는 진수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만도와 진수 사이의 거리감이나 단절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ㄹ. 만도가 급하게 술 사발을 주문하는 모습을 통해 만도의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짐작할 수 있다. 술 사발이 만도 부자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

23 만도는 주막에 들어서면서 농담을 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등,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를 본 후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느껴 평소처럼 장난을 칠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4 주막집에 들어선 만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진수의 국수를 주문하며 애정을 표현한다. 주막집에서의 사건 이후 만도와 진수의 갈등이 해소되므로, 그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은 주막집이라고 볼 수 있다.

25 (비)와 (서)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 해당한다. 이 작품의 ‘절정’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드러나는 동시에 만도가 진수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워 주고, 두 사람이 함께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기 시작한다.

26 이 글에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 한쪽 팔을 잃은 만도와,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직후까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단어는 ‘전쟁’과 ‘수류탄 쏘가리’이다.

27 만도는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며 크게 속상해하지만,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팔이 없는 자신도 잘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 주고 있다. 따라서 만도가 진수의 불행에 분노하여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진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이래 가지도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④ 진수는 다리를 잃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만도는 아들에게 서로 도우며 살면 된다고 격려하며, 현실의 고난을 의연하게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재는 ‘고등어’이다. (서)에서 진수는 아버지가 불일을 보는 동안 아버지가 산 고등어 묶음을 대신 들어 준다. 이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아버지를 돕는 행위로, 두 부자 사이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가족애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9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서로 힘을 합해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장면을 통해 서술의 초점이 인간에서 자연으로,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환되며 여운을 남긴다. 이때, 인물들의 극복 의지는 나타나지만,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0 외나무다리는 두 부자가 서로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힘을 합쳐 건너는 장소이다.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나무다리는 두 부자가 마주한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나무다리가 전쟁의 참혹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1 만도는 진수를 등에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면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잘못 만나 고생하는 아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32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기나 배경, 소재, 인물의 행동과 말투 등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작품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서술상의 특징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나 작품이 창작된 시기로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② 작품 속 특정 소재를 통해 그 시대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④ 등장인물의 말투나 대화에 쓰인 단어에는 당시의 언어생활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담겨 있다. ⑤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작품 속의 사건은 당시 사회의 모습이나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독집해썩 예상 문제

본책 70~73쪽

01 ② 02 외나무다리 03 ④ 04 ④ 05 ①
06 고된 노동 중에 잠시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07 ⑤ 08 ⑤
09 ③ 10 ⑤ 11 진수에 대한 만도의 애정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12 ④ 13 ④ 14 ③ 15 원경, 민족적

01 만도의 소맷자락이 아무것도 든 것 없이 노상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모습을 통해 한쪽 팔을 잃은 만도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만도는 한쪽 팔이 없어서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이 때문에 만도는 물에 굴러떨어졌던 경험도 있다. 따라서 외나무다리는 만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도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므로, 외나무다리는 만도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03 ㉔은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들르는 주막집에 대한 내용으로, 만도에게 주막집은 고단한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달래 주는 공간이다. 이곳은 인물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공간은 아니다.

04 징용에 동원된 사람들은 공습경보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굴 바닥에 엎드려 비행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 숨 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 모기떼 등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열악한 환경이 드러난다.

② (가)에 정거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③ (가)에서 징용에 끌려 나가는 사람들이 정거장에 모여 낯선 타지로 향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다)를 통해 징용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섬에 비행장을 닦기 위해 산을 허무는 등 전쟁을 위한 노동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만도는 징용지로 떠나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담배를 피우며 무덤덤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자신을 배웅하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자 ‘코허리가 쪼그’해지는 슬픔을 느끼고, 아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 버린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만도가 무뎠던 것이지만, 속정이 깊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6 일제 강점기 징용에 끌려간 노동자들은 쉼 없이 이어지는 강제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공습경보는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간만큼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잠시라도 몸을 편히 쉬고 싶은 마음에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렸던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고된 노동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쉴 수 있었기 때 문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7 ㉠의 ‘그런 경우’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미처 울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갑자기 나타나 달려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미리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만도가 한쪽 팔을 잃게 된 비극적인 사고 역시 이처럼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발생한 일이다.

08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만도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지팡이를 짚은 상이군인을 보게 되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진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을 확인하게 된다.

09 (가)에서 기차가 도착하기 전 만도는 아들을 만날 기대감과 혹시나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섞인 초조한 상태였다. 이후 (나)에서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자, 만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며 코 허리가 찡해지는 감정의 변화를 겪는다.

10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여편네’의 제안을 진수가 거절하고 “여기 좋심더.”라고 한 것은 상대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다. 다리가 불편한 진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방문턱에 앉아 있으려 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기차 소리’는 만도가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재의 정거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이다.

② 만도가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발돋움하는 것은 아들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서술자는 만도의 심리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독자가 만도의 마음을 유추하게 하고 있다.

③ 만도의 표정, 즉 외양 묘사를 통해 아들의 부상을 본 만도의 참담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한쪽 바지가 떨려거리는 모습은 다리를 잃은 진수의 처지를 드러낸다.

11 만도가 진수에게 국수를 사 주는 것은 전쟁에서 몸을 다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한 만도의 안쓰러운 마음과 깊은 애정을 음식 통해 표현한 것이다. 특히 국수를 주문하며 “곰뽕기로 잘 줌……. 참지름도 치소, 잉?”과 같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통해 진수에 대한 만도의 애정이 잘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만도의 애정, 사랑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2 주막집을 향할 때 앞장서 걸던 것과 달리 (가)에서의 만도는 진수를 앞세우고 뒤를 따른다. 이는 두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지, 새로운 시련이나 또 다른 고난이 닥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만도는 진수를 앞세우고 느릿느릿 따라가며 빠르게 걸을 수 없는 진수를 배려하고 있다.

②, ⑤ 진수의 부상을 확인하고 분노와 슬픔에 빠졌던 만도가 술을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진수를 앞세우고 챙기는 모습에서 심경의 변화와 갈등 해소의 조짐을 파악할 수 있다.

③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와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인물들이 겪은 전쟁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13 진수는 다리를 잃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차라리 아버지 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라고 하였다. 즉 진수는 자신보다 만도의 처지가 낫다고 생각한 것이므로, 자신의 처지가 낫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14 (다)의 ‘외나무다리’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는 장소로 두 부자가 자신들의 앞에 놓인 시련과 고난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화합의 공간이다. 만도가 ㉠에서 섬뜩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15 이 글의 마지막 장면에서 서술자의 시선은 근경인 인물들에게서 멀어져 원경인 ‘용머리재’로 향한다. 이러한 시선의 이동을 통해 두 부자가 겪은 개인적 차원의 비극은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힘을 합쳐 비극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경의감을 표현하며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발전 학습

본책 74쪽

1 ⑤ 2 고려 왕조, 조선(새 나라)

1 승기는 두 시조의 주제를 서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하여가」는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권유하는 작품이며, 「단심가」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품이다.

| 오답 풀이 | ① 해나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자기편으로 포섭하려는 목적으로 「하여가」를 창작했다는 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② 연우는 「단심가」가 「하여가」에서 이방원이 제시한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지어진 답가라는 점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다.

③ 준호는 두 작품이 각각 ‘어떠하리’와 ‘죽어’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④ 영재는 두 시조에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선택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 2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며 고려를 향한 충정을 보이는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고, 이방원은 조선을 건국하고자 하는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와 관련한 정치적 상황이 「하여가」와 「단심가」에 반영되어 있다.

고난도 **인** 심화문제

본책 75~77쪽

- 01 ⑤ 02 ④ 03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04 ② 05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한국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이 수난을 겪는 모습이 2대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06 ④ 07 ③ 08 ㉠은 만도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반면 ㉡은 만도와 진수가 힘을 합쳐 수난을 극복하는 현장이며, 인물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이다. 09 ④ 10 ⑤
- 01 이 글의 만도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진수를 기다리며 자신이 징용을 갔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이 글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갈등이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보기>는 작품의 주제나 창작 의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에는 만도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기차에 실려 가야 했던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강제 징용의 비극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④는 <보기>를 바탕으로 한 감상에 해당한다.
- 03 (가)에서 서술자는 한쪽 팔이 없는 만도가 고등어를 들고 가는 모습을 묘사하며 ‘참 딱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만도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직접적인 연민과 평가가 드러난 대목이다.
- 04 (라)에서 진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았을 텐데…….”라고 중얼거린다. 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일 뿐, 아버지 만도를 원망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진수는 오히려 자신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아버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만도는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나신세도 참 똥이다. 똥.’이라며 진수의 처지를 몹시 안쓰럽게 여기고 있다.
③ (라)에서 진수는 고등어를 손에 들고, 만도는 아들을 등에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고 있다.
④ (가)에서 만도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있으며 자신의 불편한 몸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 노력한다.
⑤ (마)에서 만도는 술기가 있는 상태에서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으며, 떨어질까 봐 조심하며 발을 내디디고 있다.

- 05 이 글의 제목이 ‘수난이대’인 이유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와 한국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 진수라는 2대에 걸친 가족의 수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공통된 아픔을 상징한다.

평가 기준	확인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가 한쪽 팔을 잃고, 아들이 한쪽 다리를 잃은 ‘수난’의 내용을 알맞게 썼다.	
아버지와 아들, 즉 2대에 걸쳐 수난을 입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06 <보기>에서 작가는 불행한 두 부자를 또다시 물속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이 글로 민족의 수난을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수난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07 (다)에는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며 충격과 슬픔을 느끼는 만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만도의 눈물은 이와 관련된 것이며, 재회로 인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다.
- 08 ㉠은 만도가 술에 취해 혼자 건너다 굴러떨어졌던 곳으로, 인물이 겪는 개인적인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반면 ㉡은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와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이 협력하며 함께 건너는 공간으로, 대를 이은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인물 간의 화합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과 ㉡의 의미를 구분하여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9 (나)의 ‘임 향한 붉은 마음’에 색채어가 쓰였으나, 이는 고려 왕조를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연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 | 오답 풀이 |** ① (가)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는 대구법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② (가)는 ‘만수산 드령첩’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가 추구하는 타협과 공존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나)는 ‘변할 줄 있으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변하지 않는 화자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가)는 ‘어떠하리’, (나)는 ‘죽어’ 등의 시어나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 10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린 인물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주기 때문에 배울 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 조정하기

활동 학습

본책 80~83쪽

1 ④ 2 ⑤ 3 ④ 4 감정, 진솔 5 ② 6 ④

- 1 “너희 오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나도 몰랐고…….”를 통해 엄마가 영훈의 생각이나 입장, 기대하는 바를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엄마가 영훈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모르는 척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 2 (가)에서 영훈과 엄마가 갈등하게 된 원인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입장만 내세웠기 때문이다. 영훈은 나리의 재킷을 언급하며 엄마가 나리와 자신을 차별한다는 서운함을 강조하고 있고, 엄마는 영훈이 공부를 하지 않고 옷에만 관심을 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훈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 3 나리는 영훈의 말을 듣고 “오빠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건 알겠어.”와 같이 공감한 후, “일단 집에 들어가.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를 한번 해 봐.”라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4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 5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전달하는 것은 자신의 추측이나 편견을 앞세워 갈등을 깊어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주관적인 해석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보기>의 세희는 헤지의 실력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헤지의 의견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헤지가 연습하며 기울인 노력을 긍정하며 공감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④와 같이 바꾸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는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상대방이 대표로 뽑히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반의 승리만을 강조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상대방의 노력을 의심하는 발언으로, 이런 표현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⑤ 상대방의 능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키는 말에 해당한다.

독집계 ④ 예상 문제

본책 84~87쪽

01 ② 02 ③ 03 나리는 영훈에게 엄마와 대화할 것을 권유했다. 04 ④ 05 ⑤ 06 ⑤ 07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갈등의 원인과 서로 기대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08 ⑤ 09 ③ 10 주관적, 객관적 11 ⑤ 12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3 ⑤ 14 ⑤ 15 ④ 16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 01 엄마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영훈의 태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언급하며 나무라고는 있으나, 성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추궁하며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나리는 영훈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건 알겠어.”, “조금 힘들었을 거 같기도 해.”라고 말하며 영훈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
 ③ 영훈은 자신을 ‘집안의 애물단지’나 ‘하찮은 손가락’에 비유하며, 나리만 칭찬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영훈은 엄마에게 “왜 오나리만 사 줘!”, “나도 작년 거 그대로 입고 있는데!”라며 엄마가 나리에게만 새 옷을 사 주었다고 불평하고 있다.
 ⑤ 엄마는 독서실에 가지 않은 영훈에게 “너 독서실 아직도 안 갔니?”, “지금 너한테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라며 영훈의 태도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 02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영훈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태도이지,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03 나리는 영훈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먼저 공감을 표현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집에 들어가.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를 한번 해 봐.”라며 엄마와 대화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 평가 기준 | 확인 |
|------------------------------|----|
| 엄마와 대화할 것을 권유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 |
|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
- 04 영훈은 부모님이 나리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집안의 애물단지나 하찮은 손가락처럼 여긴다고 언급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 05 [A]에서 엄마는 영훈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말하며, 영훈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영훈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훈의 마음을 몰랐던 것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06 (나)에서 엄마는 영훈의 생각과 기대를 깨달았으므로, 영훈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했을 것이다. 공부나 성적 문제를 우선하여 대화를 미루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로 볼 수 없다.

07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서로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8 ⑤는 겉으로는 미안함을 표현하며 사과를 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를 비꼬며 조롱하는 표현이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며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09 (가)의 민수는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사람을 비난하고 있으며, (나)의 현수는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 또 (다)의 세희는 헤지의 실력을 무시하며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다)는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서 서로의 오해를 키우고 갈등을 악화시키는 대화를 하고 있다.

10 (가)에서 민수는 사ارا 자신을 도와주기 싫어한다고 단정 지으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갈등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주관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 추측을 배제하고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1 (나)의 현수는 약속 시간에 늦은 미래에게 “어, 왔어?”라고 말하며 미래가 늦은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표현하지 않았다. 이 경우 미래가 현수의 감정이나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수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이 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12 (다)에서 세희가 헤지의 실력을 무시하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여 갈등을 악화시킨 것과 달리, 〈보기〉에서는 헤지의 노력을 인정하며 함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3 (가)에서는 상대방이 화가 난 일을 심각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상대에게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14 나. (나)와 같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
 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 갈등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마.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면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며, 사회 전반에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 (나)와 같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는 주관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피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ㄷ. 진솔한 대화는 생각, 감정, 기대 등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5 다미는 준환에게 “나는 대형이 바뀐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어.”라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을 뿐, 준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준환은 다미가 아파서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의견만 듣고 대형을 바꾸었으므로, 다미와 상의 없이 결정한 것이다.

② 준환은 “미리 말해 주지 못해 미안해”, “다음부터는 네가 오해하지 않도록 꼭 미리 말할게.”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있다.

③ 다미는 “오늘 보니 대형이 바뀌었더라고.”라며 대형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다미는 “나는 대형이 바뀐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어.”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16 〈보기〉의 다미는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아서 준환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서의 다미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말을 해 달라고 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1 ① 2 ② 3 ⑤ 4 ① 5 ② 6 자신의 잘못을 기
꺼이 인정하는 태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7 ② 8 ④

1 '나'는 강의 중에 영수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서훈이 읽자 자신에게 반항을 한다고 여겨 학생들을 질책한다. 하지만 이는 '나'의 오해였고, '나'는 나중에 전후 사정을 알게 되지만 온갖 구실을 들어 영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이 '나'에게 반항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나'가 영수에게 사과하지 않을 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버지는 현관 앞에 차를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다리가 불편한 '나'를 기다리기 위해 차를 댄 것에 대해 경비원에게 사과하고 있다.

3 ㉔는 현관 앞에 주차한 아버지가 하는 말로, 경비원이 고수하는 원칙이 잘못되었다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원칙을 어긴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으며, ㉔에서 자신이 부득이하게 현관 앞에 주차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4 이 글은 사과하기를 주저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나'의 일화와 정중하게 사과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아버지와 경비원의 일화를 대비하여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위력과 가치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5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에게 사과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영수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있다. '나'가 직접 경비원의 사과를 받은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경비원은 다리가 불편한 딸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정을 들은 후 자신의 성급한 태도를 반성하며 사과했다.

③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한 이후, 서로에게 인사하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결말'이라고 하였다.

④ '나'는 경비원에게 허리까지 굽히고 사과한 아버지에게 "채신없이 보이잖아."라고 말했다.

⑤ 아버지는 자신이 원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며 경비원에게 먼저 사과했다.

6 (마)에서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이 갈등을 겪고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7 주차 문제를 두고 갈등하던 아버지와 경비원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8 ㉔은 "지난번엔 미안했어."라고 사과하면서도 "수업 중에 읽는 것 시키지 말라고 말해 주지 그랬니."라며 잘못을 영수에게 돌리고 있다. 이처럼 ㉔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사과의 표현으로 부족하다.

고난도 읽 심화문제

본책 92~93쪽

- 01 ⑤ 02 ⑤ 03 ③ 04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5 ⑤ 06 ④ 07 ④ 08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에게 사과를 하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01 엄마는 "지금 너한테 공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수능이 이제 삼 주 남았는데!", "이 와중에 쓸데없는 거에나 관심을 가지고."라고 말하며 시험을 앞둔 영훈이 옷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영훈은 시험 성적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이다.

② 엄마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영훈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으며, 밤낮없이 공부하는 영훈을 안쓰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옷을 사 주었다고 생각해서 서운함을 느낀 것이지, 엄마가 나리 이야기만 한다고 서운해한 것은 아니다.

④ 엄마가 영훈에게 옷을 사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것은 아니다. 엄마는 영훈이 옷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02 (나)에서 엄마는 영훈이 그동안 서운함과 초조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영훈의 감정을 이해하며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엄마가 자신이 영훈을 대한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영훈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나리는 영훈이 그동안 힘들었을 것이라며 고충에 공감하고 있다.

②, ④ 나리는 영훈에게 일단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며 엄마와 영훈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③ 엄마는 영훈이 그동안 자존감이 떨어지고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영훈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

03 <보기>에서는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가 도움을 거절한 이유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는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는 올바른 대화 방법이 아니다.

04 현수는 매번 약속에 늦는 미래에게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미래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미래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05 <보기>는 상대방에게 비난과 공격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자신의 감정을 알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말을 해 달라는 등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명령하는 표현이므로 갈등을 조정하는 발화라고 할 수 없다.

② 질문의 형식을 빌려 상대를 추궁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발화가 아니다.

06 ㉔(경비원)은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현관 근처에 차를 댔다고 아버지를 나무랐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㉔이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㉔(아버지)의 행동을 탓한 것은 아니다.

07 <보기>에서 ‘나’가 영수에게 사과를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수업 중에 읽는 것 시키지 말라고 말해 주지 그랬니.”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 점에서 <보기>는 사과 표현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08 아버지와 경비원은 서로에게 사과를 하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다)의 ‘행복한 결말’은 갈등을 겪던 두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웃으며 헤어지게 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 사과를 해서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94~97쪽

- 01 ⑤ 02 ① 03 ① 04 팔을 잃은 자신에 이어 아들까지 다리를 잃게 된 현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기 때문이다. 05 ⑤ 06 ③ 07 만도가 진수를 업고, 진수가 고등어를 손에 들고 외나 무다리를 건넌다. 08 ④ 09 ③ 10 엄마가 자신과 나리를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 11 ④ 12 ② 13 ④ 14 ② 15 ① 16 ⑤ 17 ④

01 이 글에는 한국 전쟁 직후와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나)와 (다)에서 정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각각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상황과 한국 전쟁 직후 기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글에 피난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삐익 기적 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통해 증기 기관차가 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백 명 남짓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강제로 징용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④ 만도는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누군가는 전사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던 한국 전쟁 직후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나타난다.

02 (가)에서 만도는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쁨과 기대감을 느끼며 마중을 나간다. 그리고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에 드러나듯 (다)에서 만도는 진수를 기다리며 긴장감을 느낀다. 또 (라)에서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를 본 후 큰 충격을 받는다.

03 ①의 ‘전사했다는 통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진수와 달리, 전쟁에서 사망한 다른 누군가의 소식에 해당한다. 이 소식을 진수가 전해 온 것인지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㉔의 ‘정거장 마당’은 만도가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이자 일제 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던 공간으로, 만도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③ ㉔의 ‘기차 소리’는 과거를 떠올리던 만도가 큰 소리를 듣고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④ ㉔의 ‘고등어’는 만도가 오랜만에 만나는 진수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진수에 대한 만도의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⑤ ㉔에서 진수의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은 진수가 전쟁 중에 한쪽 다리를 잃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04 만도는 징용에 끌려가 팔을 잃은 자신의 처지도 서러운데, 하나뿐인 아들마저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돌아온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만도가 ㉔와 같이 진수에게 화를 낸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분을 토해 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을 보고 분노와 절망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5** 만도는 논두렁길에 접어들며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진수를 뒤에 두고 앞장서 걷던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워 걷는다. 이후 진수와 대화를 하고 개천 독에 이르렀을 때는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고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갈등이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사투리를 활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인물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농촌 사람들의 고단한 삶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물의 대화에서는 불행을 극복하려는 의지만 나타나며,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④ 이 글에서 외나무다리나 고등어는 인물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는 소재이다. 서로 대비되는 의미의 소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 06** ‘외나무다리’는 인물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련이자 장애물을 상징하며, 이를 함께 건너는 행위를 통해 인물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외나무다리가 인물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 07** 외나무다리 앞에서 진수가 물을 직접 건너가려고 하자, 만도는 다리 한쪽을 잃은 진수에게 “그만두고, 자아 업자.”라고 하며 진수를 등에 업는다. 그리고 진수는 한쪽 팔을 잃은 만도 대신 고등어 묶음을 손에 들고 함께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평가 기준	확인
만도는 진수를 업고, 진수는 고등어를 들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08** 이 글은 (라)와 같이 시선을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환하며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맺고 있다. 이는 두 부자가 겪은 개인적 고난을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만도와 진수가 서로 도우며 현실을 극복해 나갈 것임을 암시한다.

- 09** 엄마는 영훈에게 “쓸데없는 거에나 관심을 가지고, 네 앞날이 뻔하다 뻔해.”와 같이 영훈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② 엄마는 영훈의 서운한 감정을 이해하거나 귀를 기울여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④ 영훈은 공부보다 옷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기대와 충돌하고 있다.

⑤ 영훈은 엄마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표현하지 않았으

며, 나리에게만 옷을 사 줬다고 생각해서 느낀 서운함을 드러내었다.

- 10** 영훈은 자신이 집안의 애물단지나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받는 것에 상처를 입었으며, 엄마의 따뜻한 시선과 동등한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영훈이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11** 〈보기〉의 표현들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들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공격적인 표현이다.

- 12** 예지는 자신 때문에 화가 난 친구에게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상대를 탓하고 있다. 예지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13**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14**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하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협력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 ㄷ, ㄴ. 상대를 설득하거나 대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의 장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 15** 다미는 대형이 바뀐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을 뿐, 대형을 바꾼 준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다미는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맨 앞줄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준환은 ‘맨 앞줄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나와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③ 준환의 “우리 반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날 나온 친구들의 의견만 듣고 대형을 바꾸게 되었는데”라는 말을 통해 준환이 대회 준비 과정 중에 반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준환은 대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다미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대회 연습 중 다미가 불참한 날에 대형을 바꾸게 되었고, 이에 대해 준환이 공유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 16** 갈등 해결을 통해 관계가 회복될 수는 있으나, 우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 17** 다미는 안무 대형이 바뀐 상황에 대해 “오늘 보니 대형이 바뀌었더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 줄 수 있어?”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먼저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3 세상과 주고받는 말과 글

01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 활용하기

활동 학습

본책 102~107쪽

- 1 ④ 2 ⑤ 3 ① 4 ⑤ 5 친구가 나에게 빨리 뛰어가
자고 말했다. 6 ② 7 ① 8 ⑤ 9 그 문제는 곧 해결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10 ③

1 (가)는 주어인 '고양이'가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의 문장이고, (나)는 주어인 '쥐'가 다른 주체인 '고양이'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피동 표현의 문장이다. (가)는 '고양이'에게, (나)는 '쥐'에게 초점을 두고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은 주어인 '내가'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선물'을 주어로 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면 '선물이 친구에 의해 나에게 주어졌다.'가 된다.

3 피동 표현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사용하여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화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듯한 느낌을 주어, 그 내용을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오답 풀이 | ② 피동 표현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사용한다.

③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어가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능동 표현이다.

④ 피동 표현을 통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구성하여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피동 표현은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신중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4 직접 인용 표현은 조사 '(이)라고'를 붙여 나타내거나 '하고'를 뒤에 사용하여 나타내고, 간접 인용 표현은 조사 '고'를 붙여 나타낸다.

5 간접 인용 표현은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고'를 붙여 나타낸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친구가 나에게 빨리 뛰어가자고 말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6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는 말의 표현과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므로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현장감과 사실성을 드러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③ 말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인용 표현의 종류와 상관이 없다.

④, ⑤ 정확한 표현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말하는 이의 어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인용하는 말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직접 인용 표현이다.

7 '유발한다'는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이를 피동 표현인 '유발된다'로 바꾸어 쓰면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8 ㉔는 탐방객이 많이 방문하는 '봄철갈이 꽃 피는 시기'에 버려지는 라면 국물이 하루에 120리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㉕는 특정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버려지는 라면 국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따라서 ㉕는 ㉔의 일부만 선택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인용했다는 문제가 있다.

9 '해결되어지다'는 명사 '해결' 뒤에 피동 접사 '-되다'가 결합한 '해결되다'에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해결되다'로 고쳐서, '그 문제는 곧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로 고쳐 써야 한다.

10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 또는 글에 끌어 쓰는 표현으로, 자기 목적에 맞게 인용 표현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 다만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독집해 썬 예상 문제

본책 108~111쪽

-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① 06 ② 07 ③
08 (이)라고, 하고, 어조 0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⑤ 14 ①, ⑤ 15 ③ 16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17 ② 18 ④ 19 ④ 20 ②

01 (가)는 능동 표현으로, 주어 '사람들이'가 제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낸다. (나)는 (가)를 피동 표현으로 바꾼 문장으로, 주어 '집이'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를 (나)로 바꾸었을 때는 주어가 행위를 한 주체에서 행위를 당한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주어 '사람들이'가 제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고, (나)는 (가)를 피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② (가)의 주어 '사람들이'는 (나)에서 부사어 '사람들에게'로 바뀌었다.

③ (가)의 목적어 '집을'은 (나)에서 주어 '집이'로 바뀌었다.

④ (가)에서는 행위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제힘으로 집을 헐 것이 되지만, (나)는 행위의 초점이 '집'으로 바뀌어서 집이 사람들에게 의해 헐린 것이 되고 있다.

02 ‘꺾었다’는 ‘꺾다’에 어미 ‘-었-’이 결합한 형태로, 피동 표현을 만드는 접사나 ‘-어지다’ 등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 해당 문장에서는 주어 ‘나는’이 체함으로 친구의 고집을 꺾은 것이므로, ③은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소방관이 불을 꺾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불이 소방관에 의해서 꺾졌다.’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주어 ‘소방관이’는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 ‘불을’은 주어가 된다. 그러나 ‘소방관이’가 다른 주체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초점이 바뀌는 것이다.

04 피동 표현은 능동사에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거나 ‘-아/어지다’를 결합하여 나타낸다. 이 외에도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⑤의 ‘먹게 되다’는 접사 ‘-되다’를 결합한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쓰인 것이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뱀이 개구리를 먹었다.’라는 능동 표현에, 접사 ‘-히-’를 활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② ‘힘센 친구가 나를 밀었다.’라는 능동 표현에, 피동 접사 ‘-리-’를 사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③ ‘(내가) 졸음이 와서 눈을 자꾸 감는다.’라는 표현에, 피동 접사 ‘-기-’를 활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④ ‘(나는) 이곳에 오면 활기를 느낀다.’라는 표현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05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지우는 처음에 “교실 유리창이 깨졌어요.”라고 말하며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할 때에야 “윤재가 유리창을 깼어요.”라고 능동 표현으로 말한다. 선생님은 지우가 처음에는 유리창을 깬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고 추론하여 말할 수 있다.

06 (가)에서 손님은 능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식탁을 안 닦은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주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종업원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므로 종업원이 손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능동 표현으로, 식탁을 안 닦은 행위의 주체가 드러난다.

③ (나)는 피동 표현으로, 주체가 숨겨지므로 식탁이 닦이지 않은 사실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④ (나)에서는 손님이 종업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식탁이 닦이지 않은 사실만 말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은 오히려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

⑤ (가)와 같이 주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말하면 상대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식탁이 닦이지 않은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나)처럼 표현하는 것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효과적이다.

07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인용 표현으로,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고’를 붙여 나타낸다.

08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용 표현이다. 따라서 말하는 이의 어조를 담아낼 수 있다.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조사 ‘(이)라고’를 붙이거나 ‘하고’를 인용하는 부분 뒤에 사용하여 나타낸다.

09 직접 인용 표현과 비교할 때,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는 부분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나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달라진다. ‘영호는 어제 나에게 “내일 도서관에서 만나.”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간접 인용을 하는 현재의 시점에 맞춰서 ‘내일’을 ‘오늘’로 바꿔야 한다. 즉 올바른 간접 인용 표현은 ‘영호는 어제 나에게 오늘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말했다.’가 된다.

10 <보기>의 (가)~(다)는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꾼 문장이다. (가)의 종결 표현인 ‘-어요’는 ‘-냐로, (나)의 종결 표현인 ‘-아’는 ‘-다’로, (다)의 종결 표현인 ‘-어’는 ‘-다’로 바뀌었다.

| 오답 풀이 | ① 직접 인용 표현에서 ‘그녀’는 가리키는 대상이 ‘나’와 가까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를 ‘나’의 입장에서 간접 인용할 때는 ‘이것’으로 바꿀 수 있다.

② 직접 인용 표현에서 ‘언니’는 자신을 ‘나는’으로, ‘나’를 ‘네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의 입장에서 이를 간접 인용할 때는 ‘자기는’, ‘내가’로 바꾸어야 한다.

③ 준호는 조금 전에 책을 읽으며 ‘지금’이라고 표현하였고, 이를 현재를 기준으로 간접 인용할 때는 ‘아까’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직접 인용을 하는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형으로 표현된 ‘읽는’은 간접 인용을 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행위이므로, ‘읽고 있던’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직접 인용 표현과 비교할 때,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는 부분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문장에 쓰인 각 요소에 변화가 나타난다.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은 간접 인용하는 화자의 관점에 맞추어 적절히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11 직접 인용 표현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나 간접 인용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반영되지 않고 종결 어미도 달라진다. 이로 인해 <보기>에서와 같이,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간결하고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에 해당한다.

⑤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은 같으므로, 자신의 의도에 맞게 바꾸어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12 '유발되다'는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 글쓴이는 '유발하다'라는 능동 표현 대신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3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유발되다'라는 표현을 통해 상황을 중립적으로 표현하여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4 <보기>에서는 '탐방객이 너무 많이 와서'라고 말했는데, ㉠은 이를 삭제하고 인용하였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탐방객을 탓하는 듯한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또 <보기>에서는 라면 국물이 많이 버려지는 시기로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를 말했으나, ㉠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버려지는 라면 국물의 양이 많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자 했다.

| 오답 풀이 | ㉡ ㉠은 직원의 말 중 일부를 삭제하고 인용하였다.

㉢ ㉠의 글쓴이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 ㉠은 직접 인용 표현이 아닌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5 '잊혀졌다'는 '잊다'의 피동사인 '잊히다'에 '-어지다'가 붙은 것으로, 피동이 두 번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 능동사 '끊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능동사 '꺾다'에 접사 '-이-'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능동사 '들다'에 접사 '-리-'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명사 '안내'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16 '극복되어야'는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능동 표현인 '극복해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의 문장을 '극복해야'로 바꾸어 쓰려면 주어 '우리는'을 사용하고, '어려움이'는 '어려움을'로 바꾸어야 한다.

17 '생각'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 표현인 '생각하다'가 자연스러운 말이다. '생각되다'로 쓰는 것은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8 <보기>는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직접 인용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상 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 직접 인용 표현을 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글쓴이의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 문제의 원인이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피동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인용 표현을 나타내는 조사 '(이)라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19 간접 인용을 할 때도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 견해에 따르면', '~는 ~라고 말했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20 <보기>에서는 '김 박사'의 견해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쓰며 간접 인용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가 쓴 글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다.

발견 학습

본책 112~113쪽

1 ㉢ 2 ㉤ 3 ㉠

1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이중 피동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어감의 차이를 인식하되, 공식적으로는 이중 피동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글쓴이는 국립 국어원에서 이중 피동을 잘못된 어법으로 본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와 상반되는 견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글쓴이는 피동 표현에 '-어지다'를 결합한 '잊혀진 계절', '물려진 진실'과 같은 말이 이미 대중에게 익숙해졌다고 하였으나, 대중에게 이미 익숙해진 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는 않았다.

㉣ 글쓴이는 어감으로 보면 '잊히지'나 '잊어지지'보다 '잊혀지지'가 자연스럽다고 설명하고 있다.

㉤ 글쓴이가 '-이-', '-하-', '-리-', '-기-' 뒤에 '-어지다'가 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아니다. 글쓴이는 어감으로 보면 이중 피동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으며 이중 피동에 관한 견해와 어감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이중 피동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닌 일부 국어학자들은 '회복되어진다'의 '-어진다'처럼 '-어지다'가 단순히 피동 표현이 아니라 상태 변화나 진행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 관점으로 <보기>를 분석하면 '복구되어진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라 도로의 복구가 시작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다.

3 <보기>의 '쓰여진'은 '쓰다'에 접사 '-이-'를 붙이고 또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올바른 피동 표현으로 고치면 '쓰인'이나 '써진'이 된다. ㉠의 '쓴'은 피동 표현이 아닌 능동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 ㉤ '쓰다'에 접사 '-이-'를 붙인 피동사 '쓰이다'에 '-어지다'를 또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 시의 분위기에 따라 더 애뜻하고 먹먹한 느낌을 주기 위해 시인이 의도적으로 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쓰여진'은 올바른 피동 표현인 '쓰인'이나 '써진'보다 애뜻하고 먹먹한 느낌을 주고 있다.

-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교실 유리창을 깬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인용하는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12 ① 13 ③ 14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를 삭제하여 특정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버려지는 라면 국물의 양이 많다는 사실만 강조하였다. '탐방객이 너무 많이 와서'를 삭제하여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15 ⑤ 16 ⑤ 17 ② 18 이중 피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고쳐서 써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 ⑤

01 피동 표현은 능동사에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거나 '－아/어지다'를 결합하여 나타낸다. 즉 모든 능동사에 접사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2 <보기>의 문장은 피동 표현으로, '그가 한 말에'로 인해 주어인 '서운한 마음이' 풀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그가'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 풀리게 된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풀렸다'는 '풀다'에 접사 '－리－'가 결합하여 피동사가 된 서술어이다.

②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보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④ 능동 표현으로 행위의 초점을 바꾸면 서운한 마음이 풀린 것을, 서운한 마음을 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주어 '서운한 마음이'를 목적어 '서운한 마음'으로 바꾸어 '그가 한 말이 서운한 마음을 풀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⑤ '그가 한 말에'는 마음이 풀리게 된 원인을 나타내며, 피동 표현의 부사어에 해당한다.

+ 참고 자료

목적어와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 예 토끼가 들판에서 풀을(목적어) 뜯는다.
부사어	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 주는 말 예 그는 도서관에서(부사어) 공부를 했다.

03 '지어진다'는 능동사 '짓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는 접사는 '－이－, －히－, －리－, －기－'이며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04 ㉠ 능동 표현의 '쥐를'은 서술어 '쫓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에 해당한다.

㉡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서술어 '쫓다'는 접사 '－기－'를 결합한 '쫓기다'가 된다.

㉢ 능동 표현의 주어인 '고양이가'는 '에게'와 결합하여 피동 표현의 부사어가 된다.

05 '윤재가 유리창을 깬어요.'라는 표현은 능동 표현으로, 유리창을 깬 주체가 윤재라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를 '교실 유리창이 깨졌어요.'라는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교실 유리창을 깬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윤재는 교실 유리창을 깬 주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과 같이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유리창을 깬 주체를 밝히지 않고 싶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썼다.	

06 뉴스에서 날씨를 보도할 때 <보기>와 같은 피동 표현을 활용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으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즉 날씨를 전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기자의 의견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거짓되다'와 '진실되다'는 명사에 접사 '－되다'가 결합한 단어로,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피동 표현의 예로는 '생각되다', '극복되다' 등이 있다.

08 '생각되어진다'는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 '생각되다'에 '－어지다'가 다시 결합한 예이다. '생각'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 표현인 '생각하다'가 자연스러운 말이다. 따라서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한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불필요하게 사용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올바르게 고친 예이다.

② 피동 접사 '－기－'에 '－어지다'가 다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에서, '－어지다'를 삭제한 올바른 예이다.

③ 피동 접사 '－히－'와 '－어지다'를 중복하여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을 올바르게 고친 예이다.

⑤ 피동 접사 '－리－'와 '－어지다'를 중복하여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을 올바르게 고친 예이다.

09 ㉠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누나가 한 말의 내용은 나타나지만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은 직접 인용 표현으로, 누나가 한 말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있고, 누나의 어조가 담겨 있어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④ ㉠과 ㉡은 모두 누나가 한 말을 '나'가 끌어 쓴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⑤ ㉠은 누나가 한 말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직접 인용 표현이고, ㉡은 누나가 한 말의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간접 인용 표현이다.

10 <보기>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그녀는 내게 나는 이것이 보이냐고 물었다.’로 쓸 수 있다. 간접 인용 표현은 화자인 ‘나’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므로 높임 표현 ‘-시-’는 유지하지 않는다.

11 직접 인용 표현과 달리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수지의 어조가 반영되지 않고 종결 어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을 간결하고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간접 인용 표현은 문장을 간결하고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12 직접 인용 표현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인용하는 부분의 정확한 표현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ㄱ), 말투와 어조가 담겨 있어 (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ㄷ).

| 오답 풀이 | ㄴ. 직접 인용 표현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끌어 쓰는 것으로,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간접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13 ㉢은 ‘유발된다’에서 피동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미루어 보아, 글쓴이는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14 ㉠은 <보기>의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와 ‘탐방객이 너무 많이 와서’라는 정보를 삭제하고 인용하였다. 이는 특정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버려지는 라면 국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주체를 드러나지 않게 하여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를 삭제하여 특정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버려지는 라면 국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내용을 알맞게 썼다.	
‘탐방객이 너무 많이 와서’를 삭제하여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5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원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풀어 써야 한다. 이때 원저자

의 생각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에 맞게 내용을 변형하여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직접 인용은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할 때는 인용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올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③ 인용을 할 때는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원저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④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의 견해에 따르면’, 혹은 ‘~는 ~라고 말했다.’와 같은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16 이 글의 글쓴이는 이중 피동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언어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①~④는 모두 이중 피동 표현을 인정하는 관점에 해당하며, ⑤는 언어 규범에 따라 이중 피동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 해당한다.

17 ‘닭이다’는 ‘닭다’에 접사 ‘-이-’가 결합한 올바른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잠그다’에 접사 ‘-기-’가 결합한 후 다시 ‘-어지다’가 결합하여 ‘잠겨지다’가 되었으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쓰다’에 접사 ‘-이-’가 결합한 후 다시 ‘-어지다’가 결합하여 ‘쓰여지다’가 되었으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읽다’에 접사 ‘-히-’가 결합한 후 다시 ‘-어지다’가 결합하여 ‘읽혀지다’가 되었으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믿다’에 접사 ‘-기-’가 결합한 후 다시 ‘-어지다’가 결합하여 ‘믿겨지다’가 되었으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18 이 글의 글쓴이는 이중 피동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언어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진수에게 공식적인 글을 쓸 때는 이중 피동 표현을 고쳐야 한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공식적으로는 이중 피동 표현을 고쳐 써야 한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이 글의 내용을 활용하여 썼다.	

19 사진을 보낸 주체인 시민이 문장에 드러나 있으므로 ‘보내져 왔다’에서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동 표현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또 문맥상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시민이 사진을 한 장 보냈다’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 쓰기

활동 학습

본책 120~125쪽

1 ⑤ 2 ⑤ 3 ③ 4 ③ 5 ⑤ 6 ④ 7 독자
8 ②

- 1 준서는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정하며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수집할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 2 준서는 준서네 학교 학생들이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하였다.
- 3 (다)는 준서가 인터넷에서 찾은 동영상 자료이다. 준서가 글을 실을 매체는 인쇄 매체인 학교 신문이므로, 동영상은 준서의 글에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
- 4 준서는 개요를 작성하면서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불필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고 조정했다. 그러나 아직 글을 써 표현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독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조선 시대에 사직단이 지닌 중요성’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했다.
②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처음-가운데-끝’으로 내용을 조직했다.
④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며 생성한 내용들을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구성하고 있다.
⑤ ‘처음’ 부분에서 종묘의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할 때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넣겠다고 하였다.
- 5 글을 쓰는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여 알맞게 표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준서는 글을 쓰면서 독자를 고려하여 문단의 내용을 배열하거나 자료의 표현을 수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 없이 활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6 단어의 뜻을 추가한 것은, 글을 읽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7 글쓴이가 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는 독자이다. 따라서 글을 고쳐 쓸 때는 독자의 배경지식, 기대나 요구 등 독자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8 준서는 ㉠에서 간접 인용했던 프랭크 게리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고쳐 썼다고 하였다. 이는 독자의 흥미를 끌고 내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즉 글쓴이의 의도와 효과에 맞게 표현 방법을 고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집예상문제

본책 126~129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③
08 ② 09 ③ 10 독자가 정전의 아름다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1 ① 12 ② 13 ② 14 ④ 15 ③

- 01 (가)에서 준서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글을 쓰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종묘 건축물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찾을 때는 텔레비전,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매체만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기 어렵다.
- 03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선별할 때는 수집한 자료가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하면서도 독자의 관심이나 수준에 적절한지,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맞는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 등을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오답 풀이 | ㄱ. 자료의 분량은 자료를 선별할 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수집한 자료는 글의 목적과 주제, 독자의 수준 등에 맞아야 한다.
ㄴ. 자료를 활용할 때는 그대로 활용하기에 편리한 내용인지를 고려하기보다는 쓰려는 글에 적절한 내용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 04 [D]는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이유와 종묘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종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이라는 점과 그 이유를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다양한 건축 양식을 소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하지 않다.
- 05 종묘를 구성하는 건물들과 그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종묘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추가할 자료로 적절하다.
- 06 이 글의 목적은 종묘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종묘를 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은 글의 목적이 아니며, 글의 ‘처음’ 부분에 위치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처음’ 부분이므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종묘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서 ‘조선 시대에 사직단이 지닌 중요성’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종묘의 여러 건물 중 정전에 대해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종묘가 건축된 과정을 미리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정전의 길이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

07 자료를 수집, 선별하고 글을 쓸 때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제시된 쓰기 계획에서 글을 읽을 예상 독자는 판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므로, 전문 용어 위주로 구성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나)는 종묘가 건축된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직단의 개념은 나타나 있지만 사직단의 중요성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09 (가)에서 종묘에 대한 프랭크 게리의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묘가 장엄한 공간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종묘만의 고유한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이 나타난다.

② ‘신주’라는 어려운 단어의 뜻을 괄호 안에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그렇다면 종묘는 건축물로서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찬사를 받는 것일까?’와 같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⑤ 종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10 (다)는 종묘 정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종묘 정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보기>의 사진을 추가하면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독자가 정전의 아름다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11 <보기>는 독자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쳐쓰기 계획을 세운 내용이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①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2 고쳐쓰기는 글의 내용 차원, 조직 차원, 표현 차원에서 두루 이루어져야 한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적는 것(ㄱ)이나 정보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ㄴ)은 내용 차원의 점검 항목이다. 단어를 풀어 쓰거나(ㄷ)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ㄹ)은 표현 차원의 점검 항목이다.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ㅁ)은 조직 차원의 점검 항목이다.

13 자료를 활용할 때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와 목적, 내용에 맞게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해야 한다.

14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는 독자이다. 따라서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쓰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더

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글을 끝까지 읽는 데 도움이 된다.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독자를 고려한 고쳐쓰기라고 볼 수 없다.

15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는 앞서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며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발전 학습

본책 130~131쪽

1 ④ 2 객관적, 소리 3 ⑤ 4 ④

1 이 글의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퇴고 과정에서는 첫 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2 이 글에서 말하는 퇴고의 세 가지 방법은 타인의 관점에 입각해 내 글을 객관적으로 다시 읽기, 가까운 사람에게 글을 보여 주고 봐 달라고 부탁하기,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마무리하기가 있다.

3 <보기>의 지우는 타인을 통한 퇴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글쓴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보는 것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지우에게 이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다. ⑤와 같이 글의 목적과 주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내용은 지우와 같은 관점으로, 이 글의 글쓴이가 지우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하지 않다.

4 발표문이나 연설문 등은 소리 내어 읽는 글이므로 청자를 고려한 고쳐쓰기 점검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 문장을 최대한 길고 상세하게 구성하여 말하면 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풀이 | ① 소리 내어 읽는 글이므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입에 붙는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②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문, 연설문 등은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청중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③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므로 청자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⑤ 주어진 시간 안에 내용을 전달해야 하므로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분량을 조절해야 한다.

- 01 ④ 02 [C]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에 활용할 수 없다. 03 ③ 04 ③ 05 독자의 흥미를 끌고 내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06 ②

- 01 (가)에 따르면, 준서는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제로 친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고자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주관적인 감상이 담긴 내용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수집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설명하려는 글이므로, 종묘의 건축적 특징을 담고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은 적절하다.

- ②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찾아야 한다.
③ 종묘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종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은 적절하다.
⑤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 02 [C]는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의 관람객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자료이다. 이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에 활용할 수 없다.

평가 기준	확인
글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기호로 [C]를 썼다.	
글에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썼다.	

- 03 준서가 쓰려는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종묘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종묘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건물을 소개하는 것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4 독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의 뜻을 추가하거나 쉬운 단어로 풀어 쓰는 것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한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㉔, ㉕ 맞춤법에 맞지 않은 단어를 알맞게 고쳐 쓴 것은 표현 차원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05 ㉔는 프랭크 게리의 말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쓴 것이고, <보기>는 이를 직접 인용 표현으로 고쳐 쓴 것이다. 간접 인용 표현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고쳐 쓰면 독자의 흥미를 끌고 내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독자의 흥미를 끌고 내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06 발표문으로 고쳐 쓸 때는 발표를 듣는 청자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를 활용하는 것보다 글의 내용이 청자의 배경지식에 적절한지, 청자의 기대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지, 글 내용에 대해 청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와 같은 청자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문제

본책 134~137쪽

- 01 ③ 02 ⑤ 03 신제품이 그에 의해 개발되었다. 04 ②
05 ④ 06 ④ 07 ④ 08 ① 09 ④ 10 ⑤ 11 ③
12 ②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유래 → 유례.
'갈거나 비슷한 예'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유래'가 아니라 '유례'이기 때문이다. 18 ③

- 01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행위의 초점의 경우 능동 표현은 행위를 한 대상에 있고,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에 있다. 따라서 피동 표현인 (나)의 행위의 초점은 행위를 당한 주어인 '아기가'에 있으며, 부사어인 '엄마에게'에 있는 것은 아니다.

- 02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된다. 따라서 ㉔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한다.

- 03 <보기>의 목적어인 '신제품을'이 피동 표현의 주어 '신제품이'가 되고, 주어인 '그가'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 '그에 의해'가 된다. 서술어인 '개발했다'는 명사 '개발'에 접사 '-되다'가 결합해 '개발되었다'가 된다.

평가 기준	확인
피동 표현의 주어와 부사어를 알맞게 바꾸어 썼다.	
서술어 '개발했다'의 '개발'에 '-되다'를 결합하여 '개발되었다'로 알맞게 바꾸어 썼다.	

- 04 피동 표현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㉑) 사용한다. 이에 따라 피동 표현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㉒)가 있으며,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효과(㉓)가 있다.

05 ①, ②, ③, ⑤는 어떤 일에 대해 예측하는 내용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④는 이미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06 ‘형성되다’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로,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쓰다’에 접사 ‘-이-’가 결합한 ‘쓰이다’에 ‘-어지다’가 다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② ‘보다’에 접사 ‘-이-’가 결합한 ‘보이다’에 ‘-어지다’가 다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⑤ ‘극복되다’와 ‘생각되다’는 ‘극복하다’와 ‘생각하다’가 더 자연스러운, 불필요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07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용 표현이다.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인용 표현이다. 즉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쓰더라도 형식만 달라질 뿐, 전달하는 말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08 ㉠ 진수가 어제 시점에서 ‘내일’이라고 말한 것이므로,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시간 표현을 ‘오늘’로 바꾸어 써야 한다.

㉡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높임 표현인 ‘제가’를 ‘내가’로 바꾸어 써야 한다.

㉢ ‘그’가 말한 내용이므로 간접 인용을 하는 관점에서는 ‘나’를 ‘자기는’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09 (가)는 직접 인용 표현으로, 정확한 표현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어조가 담겨 있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나)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보다 인용하는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즉 (나)보다 (가)가 정확한 표현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⑤ (가)에는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담겨 있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고,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다.

② (가)는 조사 ‘라고’를, (나)는 조사 ‘고’를 사용하고 있다.

③ 간접 인용 표현인 (나)의 문장이 (가)보다 간결하다.

10 <보기 1>과 같은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보기 2>에서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주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능동 표현을 쓴 제목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가장 적절하다.

11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글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형식은 바꿀 수 있다.

12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맞게 글쓰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계획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한 후에도,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글에 포함하지 않은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점검하여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3 (다)는 종묘 정전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이 글을 실을 매체는 인쇄 매체인 학교 신문이므로 동영상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종묘의 건축적 특징을 담고 있으므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며, 박석 등의 단어는 독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풀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나)는 종묘에 대한 세계적인 건축가의 찬사가 나타난 자료이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종묘의 가치를 보여 주기에 적절하다.

④ (라)는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의 관람객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으로, 종묘의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라)는 이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마)는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와 종묘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14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표현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15 문장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은 고쳐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16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였으므로, 독자의 기대나 요구를 반영한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으로 고치는 것은 표현 차원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② 글의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것은 표현 차원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③, ④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고쳐 쓰는 것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한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17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웅장한 규모라는 의미의 문장에서 ‘유래’는 ‘같거나 비슷한 예’라는 뜻의 ‘유례’로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유래’를 ‘유례’로 알맞게 고쳐 썼다.	
고쳐 쓴 이유를 한 문장으로 알맞게 썼다.	

18 앞 문단에 이어서 종묘 정전이 101미터라는 긴 길이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렇다면’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매체로 보는 세상

01 매체 환경에서 빠르게 읽기

본책 142~147쪽

재제

1 ④ 2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방법 3 ④ 4 ④ 5 ④ 6 ④ 7 ⑤
8 ④ 9 ③ 10 ④ 11 너지 효과는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여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 12 ⑤ 13 ③

1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며 계획에 없는 소비를 했던 경험을 환기하여 글의 주제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과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처음’ 부분에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중심 소재인 너지 효과의 뜻을 설명하고 있으나, 글의 전개 방식이나 설명 순서를 안내한 것은 아니다.

③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너지 효과를 설명한다는 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지 글의 목적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

⑤ 너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을 뿐,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다.

2 (가)를 통해 너지가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뜻이며,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화장실 소변기 가운데에 작은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인 것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너지 효과를 활용한 것이다.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주의를 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은 너지 효과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에 해당한다.

4 (다)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너지 효과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변기 중앙에 파리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소변기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글과 함께 다양한 표현 양식을 활용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사진을 통해서 너지 효과의 단점을 추측할 수는 없다.

② 일상에 적용한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이용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유도한 사례인 것이지 너지 효과가 이용객에게 어떤 재미를 주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 해당 사례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지 우연히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아니다.

5 자발적 지불 전략을 도입한 뷔페 식당의 평균 이용료는 7.99 유로에서 6.44유로로 낮아졌으므로 증가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한 뷔페식당에 자발적 지불 전략이 입소문을 타며 홍보 효과로 작용했다.

②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 도입 이후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③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은 소비자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사례이므로 너지 효과에 해당한다.

⑤ 국내외의 다양한 기업들이 소비 행동 변화와 매출 증가를 위해 너지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

6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증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그래프는 연도별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통해 국가별 구독자 수의 차이는 알 수 없다.

② 다양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③ 제시된 그래프만으로는 구독자 수가 증가한 이유를 알 수 없다.

⑤ 플랫폼 기업의 노력으로 구독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그래프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7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너지 효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여 구매를 유도하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⑤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례이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가 아니다.

8 <보기>는 너지 효과를 활용해 시민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사례로, 교통 약자들이 계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사례가 교통 약자의 계단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아)에서 투표 쓰레기통과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이 글은 중요한 정보를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내용을 보완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글의 주제를 단순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②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제시하여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④ 글로만 표현했을 때보다 다양한 표현 양식의 정보를 더해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⑤ 구체적인 수치나 변화 과정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 주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0 (아)의 투표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 농구, 투표와 같은 흥미로운 요소를 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는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너지 효과의 공익적 활용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정책 도입 여부를 정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사람들의 경쟁심을 유도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운동 능력 향상이 아닌 거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⑤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설치했다.

11 (자)에서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주된 이유로, 무의식적인 선택 유도가 개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12 장학금이나 과태료와 같이 금전적인 보상, 손실을 주는 것을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다. 너지 효과는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너지 효과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13 이 글의 ‘끝’ 부분에서 글쓴이는 우리 주변에서 너지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너지 효과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너지 효과를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독집해 썬 예상 문제

본책 148~151쪽

-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문자, 그래프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이 결합된 복합양식의 글이다. 07 ①
08 ⑤ 09 ③ 10 공익적 목적 11 ⑤ 12 ④ 13 ⑤
14 ④

01 이 글에서는 행동 경제학 분야에서 말하는 너지 효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너지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문자와 사진이 결합된 복합양식의 글이다.

② 너지 효과의 개념과 특징 및 효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④ 너지 효과의 개념과 공항 화장실에 너지 효과가 적용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소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진을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2 너지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상품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너지 효과 자체가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너지 효과는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의 사례처럼 공익을 위한 수단으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마트에서는 계산대 근처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제품을 배치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②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 없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③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목적으로도 너지 효과가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마트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전략도 너지 효과가 활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03 (나)에서 ‘너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뜻이며,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간접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요나 명령’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에는 문맥상 ‘직접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는 너지 효과가 활용된 사례, ㉣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로서 두 사례 모두 사람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므로, 직접적으로 행동 변화를 강요하는 ㉣에 비해 사람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05 이 글에서는 너지 효과의 장점을 바탕으로 너지 효과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을 뿐, 너지 효과의 부작용이나 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② (나)에서 마케팅 분야에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로 영화 추천 시스템을, (다)에서 가격 정책에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로 자발적 지불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 너지 효과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홍보 효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영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구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고객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6 이 글은 문자와 그래프 등의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복합양식의 글이다. 복합양식의 글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글의 내용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다양한 표현 양식이 결합된 복합양식의 글이라는 내용을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07** (나)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너지 효과를 활용한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의 도입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글의 내용이 표현 양식인 그래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 오답 풀이 | ② 제시된 그래프는 구독자의 수를 보여 주고 있을 뿐, 구독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구독자들의 영화 시청 방식은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④, ⑤ 구독자들이 구독을 유지하는 기간이나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없으며, 이 글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 08** (가)는 중심 내용을 짧게 요약하여 소제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글의 핵심 화제를 요약적으로 드러내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 09** (나)는 문자와 동영상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양식의 글이고, <보기>는 문자만으로 의미를 표현한 단일양식의 글이다. 동영상을 글과 함께 제시한 (나)는 현실의 모습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단일양식의 글인 <보기>는 독자가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리며 읽게 되므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나)와 <보기>의 표현 양식의 특징이 서로 반대로 서술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10** ①의 사례는 사람들의 계단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을 시민 건강 증진을 꾀하는 것이고, ②의 사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는 모두 공익적인 목적으로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 11** (다)에서는 너지 효과가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지 효과가 상업적 목적보다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때 그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⑤는 (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2** ①은 너지 효과가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여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너지 효과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너지 효과는 특정 선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이다. 따라서 너지 효과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박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 13** (다)에서 글쓴이는 너지 효과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서 너지 효과를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너지 효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기보다 긍정적 기능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② 글쓴이는 경제적 유인과 너지 효과의 조화로운 활용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너지 효과의 장점에 초점을 두었다.

③ 글쓴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너지 효과를 부정하지 않았고, 너지 효과를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④ 글쓴이는 너지 효과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을 뿐, 창의적이지 않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아니다.

- 14** (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전적인 혜택이나 손실을 주어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은 경제적 유인에 해당한다. ④의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은 금전적인 혜택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하는 너지 효과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발전 학습

본책 152쪽

1 ① 2 ③

- 1** 글이나 자료의 내용과 표현 양식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글이나 자료의 내용이 표현 양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 신뢰성은 글이나 자료가 최근에 제작되었는지, 출처가 분명한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하였는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③~⑤ 객관성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특성을, 다양성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가 요소와 관련이 없다.

- 2** 표현 방법의 적절성은 글이나 자료에서 활용된 표현 양식의 효과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제작한 기관의 공신력이나 제작 시기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표현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라 신뢰성을 평가한 내용에 해당한다.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53~155쪽

- 01 ② 02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을 80퍼센트나 감소시켰다.
03 ⑤ 04 ⑤ 05 글에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을 너지 효과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06 ③ 07 글쓴이는 너지 효과를 자유를 보장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이며, 경제적 유인 없이도 사람들의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08 ⑤ 09 ② 10 ⑤

01 ㄱ. (가)에서 너지의 의미와 너지 효과의 개념을 제시하고, 직접적인 강요 없이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ㄷ. (나)에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 가운데에 작은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인 사진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나. (나)와 (다)에서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ㄹ.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너지 효과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다.

02 199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가운데에 작은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는 너지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사람들이 소변기를 사용할 때 자연스레 중량을 겨냥하게 하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이 스티커를 붙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80퍼센트나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평가 기준	확인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이 80퍼센트 감소했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3 <보기>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다)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기업의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은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적 최근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② 그래프의 수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

③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증가를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④ 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켰음을 보여 주므로 너지 효과의 상업적 활용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다.

04 (가)~(다)에서 너지 효과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사례들은 모두 너지 효과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너지 효과가 부정적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문자와 사진 등이 결합한 복합양식의 글이다.

② (라)에서 너지 효과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반론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전체 매출이 32퍼센트나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너지 효과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너지 효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거둔 사례를, (나)와 (다)에서는 너지 효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05 (나)는 시민들의 계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너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계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글의 내용과 사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글의 내용과 사진 자료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나)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참고 자료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의 내용 평가하기

타당성 평가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 자막, 내레이션, 배경음악 등 표현 양식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영상의 내용이 표현 양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함.
신뢰성 평가	글이나 자료가 최근에 제작되었는지, 출처가 분명한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하였는지 등을 평가함.

06 <보기>는 (다)에서 설명하는 투표 쓰레기통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다. 이를 통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 투표 쓰레기통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7 (라)에서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너지 효과는 특정 선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며 자유를 보장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

식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또 (마)에서 너지 효과는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너지 효과가 자유를 보장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이며, 경제적 유인 없이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 08** ㉠은 너지 효과가 적용된 투표 쓰레기통에 대한 설명이다. ㉡는 이와 동일하게 사람들의 선택을 강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너지 효과가 적용된 사례이다.

| 오답 풀이 | ㉠ 직접적인 경고로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지 효과와 거리가 멀다.

㉡, ㉣ 금전적인 혜택이나 손실을 주는 경제적 유인이 사용된 사례이다.

㉢ 문구가 아닌 지도로 표현했을 뿐, 너지 효과가 적용된 사례가 아니다.

- 09** 제시된 자료는 달리기의 효과 및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달리기를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독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달리기의 효과와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10** 이 자료는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에게 달리기의 효과와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달리기의 운동 효과나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나 달리기의 효과를 알기 쉽게 보여 주는 그래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기 시합에 참가했던 사람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은 이 자료의 제작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현실을 재현하는 매체 자료 분석하기

본책 158~163쪽

활동 학습

1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카페가 한적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아 북적였다. **2 ㉡ 3 ㉡ 4 ㉡ 5 ㉢**
6 ㉡ 7 ㉣, ㉡ 8 ㉡ 9 ㉣ 10 제작자, 비판적

- 1**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재현된 카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여유 있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하지만 지수가 본 카페의 실제 모습은 사람들이 많아 북적이고 있었으며, 지수는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당황하고 있다.

- 2**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게시물에 나타난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일부만 선택되어 재현된 것이다. 이는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 3** 이 광고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선크림의 기능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4** 흰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선크림의 이미지는 제품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이 반영된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 5** 민재는 두 주인공이 강당에서 마주치는 장면이 아니라, 사생 대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홍보물에서 배제하자고 하였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이 홍보물을 볼 때 더욱 극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 6** '0'의 주인공은 '미술에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 '1'의 주인공은 '취미로 그림을 배운 부잣집 고명딸'이라는 문구로 두 인물의 차이를 나타내면 좋겠다는 지유의 말을 통해, 인물을 소개하는 문구가 홍보물에 포함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가장 중요한 대목인 4학년 사생 대회 때 장원 수상자가 바뀐 사건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이미지 없이 문구만 넣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하면 1학년 학생들이 문구의 내용에만 집중을 할 것 같아."라는 윤아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0'의 주인공이 장원 상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라는 민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소설의 주제를 문구로 직접 드러내지 말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인물의 운명, 사생 대회의 장원에 얽힌 비밀'이라는 문구를 넣자. 1학년 학생들이 소설의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말아야."라는 지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7 이 광고의 제작자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친환경적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이미지와 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웃고 있는 지구의 이미지는 제품 사용이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또한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음식물 처리기'라는 문구는 제품의 친환경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제작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친환경적 제품임을 강조한 요소는 아니다.
 ② 제품 사용의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한 요소이다.
 ③ 처리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를 보여 주기 위한 요소이다.

8 인구 정책 홍보물이 제작된 1970년대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 아들을 낳기 위해 자녀를 여러 명 낳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상이 반영되어 '딸 아들 구별 말고'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으며, 크게 높아진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

- | 오답 풀이 |** ① 남녀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사회상은 반영되어 있으나, 성차별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홍보물에는 출생아 수의 감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를 여러 명 낳는 현실이 반영되었다.
 ⑤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현실은 반영되어 있으나, 가정마다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이 달랐다는 것은 알 수 없다.

9 (가)와 (나)는 금연 캠페인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이다. 이 홍보물에는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고정 관념이, 남학생은 시사에 관심이 많고 토론을 잘한다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현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자리 잡은 고정 관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매체 자료에는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이 은연중에 반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세심하게 따져보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1 (가)~(다) 모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의 일부를 선택하거나 배제하여 재현한 것이다.

- | 오답 풀이 |** ① (가)~(다)와 같은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주관적으로 현실을 재현한다.
 ③ 매체 자료는 수용자의 태도가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바탕으로 현실을 재현한다.
 ④ (나)와 (다)처럼 매체 자료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⑤ 매체 자료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지만, 제작 목적과 관계없이 최대한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02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게시 글에는 북적이는 카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한적해 보이는 일부 모습만 담겨 있다. 카페를 방문한 지수는 자신이 매체 자료에서 보았던 모습과 다른, 북적이는 카페의 현실 모습에 당황한 것이다.

03 (나)에서는 선크림이 만들어 준 그늘에서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통해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선크림을 사용하면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 선크림의 용량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을 크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 | 오답 풀이 |** 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크게 표시하여 수용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②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자외선_완벽_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③ 해변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냈다.
 ⑤ 바닷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름철 야외 활동 중에 선크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다)에서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점과,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지 않은 특성은 배제한 것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05 학생들이 홍보물에 포함될 장면과 내용, 문구 표현 방식, 이미지 제시 방법 등을 토의하며 매체 자료 제작을 계획하는 모습을 통해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표현 방법 및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집계 **썩** 예상 문제

본책 164~167쪽

- 01 ② 02 ⑤ 03 ④ 04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5 ③ 06 ②
 07 ① 08 ④ 09 ⑤ 10 ④ 11 ⑤ 12 ⑤ 13 ④
 14 ④

| 오답 풀이 | ① 매체 자료는 이미지와 문구를 모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②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의 형식은 제작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④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자료를 실을 매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⑤ 장면을 재구성하고 내용을 선택 및 강조할 수는 있으나 원작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창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6 준서의 말을 통해 도서관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 홍보물을 만든다는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대화 내용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 되어 배울 소설인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에 대한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07 영상 홍보물에서 이미지 없이 문구만 제시한다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이 문구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 윤아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인물의 운명, 사생 대회의 장원에 얽힌 비밀’이라는 문구가 영상 홍보물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제한한 것이다.

08 (가)~(다)와 같은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매체 자료에 어떤 이미지와 문구가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흥미 중심의 감상에 서 벗어나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②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분석하여 수용해야 하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③ 과거의 매체 자료는 제작 당시의 사회상,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매체 자료에 사회상과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09 매체 자료는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회상이 변해도 선택된 이미지나 문구가 변함없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돌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를 통해 당시 정부가 인구 증가를 문제로 인식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과거에는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했으므로 현재와 다른 사회상이 드러난다.

③ 시대와 정책 목표에 따라 매체 자료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현재의 인구 정책 홍보물을 공급해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④ 매체 자료에는 제작 당시 사회 현실과 생활상이 반영되므로 현재의 사회상과 달라진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0 <보기>에서는 1970년대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남아 선호 사상이 이에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

의 홍보물은 이러한 사회상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자녀를 적게 낳을 것을 권유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제작자는 아들을 중시하는 태도나 많은 자녀를 둔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것이다.

11 (나)에는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하고 남학생은 토론을 잘한다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다)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며 육아를 한다는 고정 관념을 뒤집어 표현한 매체 자료이다.

12 (가)는 젊은 사람들만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노년층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공익 광고이다. (나)가 청소년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사춘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13 (가)는 젊은 사람들만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와 관점을 담은 표어는 ④로, 어르신들도 일상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소외된 노인의 모습, 노인의 일자리 문제, 세대 간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불편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나)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한 매체 자료이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④와 같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에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은 (나)에서 배제하고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발전 학습

본책 168쪽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2 ② **3** ①

1 제시된 포스터는 도둑이 영화, 음악 등의 창작물을 훔쳐 달아나는 이미지와 ‘남의 돈, 훔치실 겁니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문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퍼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포스터는 상징적인 그림과 간단한 글귀로 독자의 주의를 끌고 주제를 전달하는 매체 자료이다.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글자의 크기나 색을 달리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단순로운 이미지와 색을 사용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병들어 있는 지구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④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문구나 수칙을 넣는 것은 적절하다.

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알리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으로 적절하다.

3 의도와 관점을 반영한 포스터는 주제를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은 오히려 전달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포스터를 게시할 장소나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③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은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배제해야 한다.

④ 포스터가 제작된 현재의 사회상을 적절히 반영해야 수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야 포스터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고난도 심화문제

본책 169~171쪽

01 ⑤ 02 ④ 03 ⑤ 04 1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05 ② 06 ③ 07 ⑤ 08 ⑤ 09 ④ 10 ④

01 (나)는 선크림의 기능을 홍보하여 해당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되었다. 선크림이 만든 그늘 아래에서 쉬는 가족의 이미지를 통해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선크림을 사용하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사람이 없는 공간과 창밖의 풍경을 함께 담아, 카페가 여유롭고 한적한 공간임을 강조하려는 제작자의 의도를 표현했다.

02 (가)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한적해 보였던 카페가 실제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매체 자료에 재현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재현한다.

② 매체 자료가 재현한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현실보다 이상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③ 매체 자료에 재현된 현실도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⑤ 수용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이 매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가)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03 나.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당당하게!'라는 선크림의 기대 효과가 수용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큰 글씨로 표현했다.

ㄷ. 선크림을 구매하려는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태양'과 '당당'에 강조 표시를 하였다.

ㄹ. 제품 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배제되었다.

| 오답 풀이 | ㄱ. '바다에서도 산에서도'라는 문구와 해변의 이미지에서 선크림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아니라 선크림의 그늘 아래 더위를 피하는 여유로운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04 (가)에서 도서부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 (나)의 홍보물이 제작된 목적을 알 수 있다. 도서부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영상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으며, 2학년에 배울 소설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을 미리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다.

평가 기준	확인
1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05 (가)에서 도서부원들은 의도와 관점에 따라 영상 홍보물의 구성, 문구, 이미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매체 자료에 반영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은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자료는 문구, 이미지, 소리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③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매체 자료 속 인물과 사건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④, ⑤ 매체 자료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했는지를 통해 제작 의도와 관점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선택되거나 배제된 요소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 비판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06 (나)의 마지막 장면은 소설의 주제를 직접 드러내는 대신, 소설의 내용을 짧은 문구로 정리하여 수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구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소설에서 중요한 장면을 선택하여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두 인물의 차이를 보여 주는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생 대회 장면은 제외하고 장원 수상 장면을 선택한 것은

대단원 평가문제

극적인 느낌을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⑤ 마지막 장면에서 이미지 없이 문구만 제시한 것은 수용자가 문구의 내용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이다.

07 이 광고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친환경적 특성을 강조하여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제품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구와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에너지 소비나 잔여물 처리 방식이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지구 환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 것은 아니다.

08 ㉠은 아들을 낳기 위해 자녀를 계속 낳는 가정이 많았으며, 인구 증가율이 높아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었던 1970년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은 최근 저출생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두 홍보물 모두 남아의 이미지가 배제되어 있으나, ㉡은 ㉠과 달리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한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9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의 이미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당신을 높은 곳으로 이끅니다.’라는 문구는 학생에게 있어 공부가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가깝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광고는 고정 관념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거나 뒤집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인종과 관련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② 장애가 있으면 운동하기 어렵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③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 나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⑤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10 이 포스터에서 도둑 이미지는 무단 다운로드가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이는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반영하거나 깨뜨린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도둑 이미지를 중앙에 배치하여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② 이 포스터는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영화, 노래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유포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③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남’과 ‘돈’이라는 글자의 색상을 달리하고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퍼트리는 행위’ 부분을 노란색으로 강조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독자가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1 ① **02** ② **03** ② **04** ② **0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 시민들의 일상 속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1** ① **12** ② **13** ② **14** 영상을 보는 1학년 학생들이 문구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

01 이 글은 (나)에서 너지 효과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다)와 (라)에서 너지 효과가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너지 효과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마트의 상품 배치, 화장실의 스티커, 영화 추천 시스템 등 사례를 들어 너지 효과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③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과 같은 표현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을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다)에서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이기 전과 비교해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이 80퍼센트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라)에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소비되는 영화가 60퍼센트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도입부에서 마트 계산대 옆에 진열된 초콜릿을 구매해 본 경험을 언급하며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글의 주제인 너지 효과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02 (다)에서 글과 함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ㄱ)하고 있다. 또 (라)에서 소재목을 통해 너지 효과가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ㄴ. 너지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

ㄷ. 너지 효과가 마트의 판매율을 높였다는 근거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을 계산대 옆에 배치해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전략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03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붙여 행동을 직접 지시하는 것 대신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여 이용객들의 행동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04 소재목의 ‘두 마리 토끼’는 (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공익적 효과를 의미하고, (나)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공익적 효과를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사진은 글의 내용과 관련된 피아노 건반 모양 계단의 실제 모습을 제시하여 내용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

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③ 복합양식의 글에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와 제작자, 제작 시기 등을 명시해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나)의 동영상 자료는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 표정, 실제 현장의 분위기 등을 담고 있으므로 문자보다 정보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⑤ 이 글은 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뒷부분에 너지 효과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나 부작용 등 유의점을 추가한다면 너지 효과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05 (가)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혼잡도가 낮아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다는 점, 시민들의 일상 속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과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의 긍정적 영향을 알맞게 썼다.	
두 가지 이상을 썼다.	

- 06 투표 쓰레기통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농구공 던지듯 골대에 넣어, 투표에 참여하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표 쓰레기통을 설치한 것이다.

② 고등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에서 채택해 쓰레기통을 설치한 것은 맞으나, 청소년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고등학생들이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

⑤ 이익이나 혜택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행동을 유도한 사례이다.

- 07 고정 관념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적 광고에도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광고의 목적과 상관없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08 (다)는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하고,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당시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된 홍보물이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09 (나)는 선크림의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기능을 강조하여 판매량을 높이려는 의도로 제작된 광고이다. 이러한 의도를 바탕

으로 할 때 제작자는 제품의 단점이 포함된 문구는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 10 이 광고는 '○○의 친구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특히 '우리'라는 글자를 강조하여 표현했다. 또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며,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고정 관념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 11 이 광고는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 판매하려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광고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 12 민재는 두 주인공이 사생 대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은 빼고 '0'의 주인공이 장원 상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으며, 다른 학생들도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한다면, 두 주인공이 사생 대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은 학생들이 제작하는 영상 홍보물에 담기지 않을 것이다.

- 13 두 인물의 처지를 대비하여 제시하므로 ㉠에는 '두 인물의 차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주인공이 장원 상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면 긴장감과 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에는 '극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마지막 장면의 문구에서 주제를 직접 밝히지 않으면 1학년 학생들이 내용을 궁금해할 것이므로, ㉡에는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이 들어가야 한다.

- 14 영상 홍보물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미지를 배제하고 문구만 제시할 경우 이미지를 함께 활용할 때보다 시각적인 생생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영상 홍보물의 수용자가 1학년 학생들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문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한 문장으로 썼다.	